

정책자료 2002-01

# 중앙부처 공무원 흡연실태

김미숙 서미경 이은영

범국민금연운동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한 「중앙부처 공무원 흡연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 머 리 말

흡연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또한 흡연이 주원인인 폐암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타인의 흡연을 통해서 담배 연기를 본의 아니게 흡입하게 되는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도 심각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총 사회적 손실액을 최대 6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공직사회에서 모범을 보일 때 전국민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 하겠다. 흡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금연을 실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준수를 철저히 하게 될 때 다른 계층의 흡연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흡연실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와 과거 흡연경험,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흡연율을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1차 조사는 2002년 3월에 중앙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그 뒤 5개월 후인 8월에 21개 정부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서미경 연구위원, 이은영 연구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본 서가 흡연실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계전문가, 금연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결정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진들은 조사에 응해주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부처별 인사과나 총무과 담당자 분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손일용 사무관, 윤재규 담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본고를 검독하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본 연구원의 남정자 연구위원과 신윤정 초빙연구위원께도 감사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는 연구진의 의견이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 목 차

전체 요약 .....	11
상세 요약 .....	13
I. 서론 .....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2. 연구내용 .....	25
3. 연구방법 .....	26
II. 정부부처공무원 흡연실태 .....	29
1. 중앙부처 공무원의 일반적 사항 .....	29
2. 흡연실태 .....	32
가. 흡연율 .....	32
나. 흡연 빈도 .....	38
다. 하루 평균 흡연량 .....	40
라. 금연노력 .....	41
마. 금연시도기간 .....	42
바. 금연에 실패한 이유 .....	44
3. 과거 흡연실태 .....	47
가. 과거 흡연 여부 .....	47
나. 금연 시도 이유 .....	51
다. 금연방법 .....	53
라.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	54
4. 간접흡연과 금연관련 정책 .....	57
가. 최근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	57
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	61

다.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6
라. 정부 청사 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	70
마. 금연 실천 유도를 위한 정책 건의 .....	74
III. 결론 .....	76
참고문헌 .....	78
부 록 .....	79

## 표 목 차

〈표 1〉	주요 연구내용(일반공무원 및 장차관)	25
〈표 2〉	표본배정	27
〈표 3〉	공무원 흡연실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30
〈표 4〉	장차관의 일반사항	31
〈표 5〉	일반공무원 흡연율	33
〈표 6〉	공무원 성별 흡연율	35
〈표 7〉	공무원 연령별 흡연율	36
〈표 8〉	공무원 직급별 흡연율	36
〈표 9〉	공무원 부처별 흡연율	37
〈표 10〉	장차관 흡연율	38
〈표 11〉	흡연자 중 연령별 매일 흡연 여부	38
〈표 12〉	흡연자 중 연령별 매일 흡연 여부	39
〈표 13〉	흡연자 중 직급별 매일 흡연 여부	39
〈표 14〉	장차관 흡연자 중 연령별 매일 흡연 여부	40
〈표 15〉	흡연자 중 하루 평균 흡연량	40
〈표 16〉	장차관 흡연자 중 하루 평균 흡연량	41
〈표 17〉	흡연자 중 금연노력 여부	41
〈표 18〉	흡연자 중 연령별 금연노력 여부	42
〈표 19〉	흡연자 중 직급별 금연노력 여부	42
〈표 20〉	장차관 금연노력 여부	42
〈표 21〉	금연시도자들의 금연기간	43
〈표 22〉	장차관의 금연기간	43
〈표 23〉	금연에 실패한 2가지 이유(중복응답임)	44

〈표 23-1〉	금연시도기간 6개월 미만자의 금연에 실패한 이유 .....	45
〈표 23-2〉	6개월 이상 금연시도자의 금연에 실패한 이유 .....	46
〈표 24〉	장차관이 금연에 실패한 2가지 이유(중복응답임) .....	47
〈표 25〉	비흡연 공무원 흡연경험 .....	48
〈표 26〉	비흡연자 공무원 성별 흡연경험 .....	48
〈표 27〉	비흡연 공무원 연령별 흡연경험 .....	49
〈표 28〉	비흡연 공무원 직급별 흡연경험 .....	49
〈표 29〉	비흡연 공무원 부처별 흡연경험 .....	50
〈표 30〉	비흡연 장차관 흡연경험 .....	51
〈표 31〉	금연을 시도한 2가지 이유 .....	52
〈표 32〉	비흡연 장차관 금연 시도 이유 .....	53
〈표 33〉	금연방법 .....	54
〈표 34〉	장차관 금연방법 .....	54
〈표 35〉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	55
〈표 36〉	공무원 연령별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	55
〈표 37〉	공무원 직급별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	56
〈표 38〉	장차관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	56
〈표 39〉	일반 공무원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	57
〈표 40〉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58
〈표 41〉	성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58
〈표 42〉	연령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59
〈표 43〉	직급별 지난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59
〈표 44〉	부처별 지난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60
〈표 45〉	흡연형태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61
〈표 46〉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장차관 .....	61
〈표 47〉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	62
〈표 48〉	성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	62
〈표 49〉	부처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	63



〈표 50〉	연령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	64
〈표 51〉	직급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	64
〈표 52〉	흡연형태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	65
〈표 53〉	장차관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	65
〈표 54〉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6
〈표 55〉	성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6
〈표 56〉	부처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7
〈표 57〉	연령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8
〈표 58〉	직급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8
〈표 59〉	흡연형태별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9
〈표 60〉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69
〈표 61〉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정도 .....	70
〈표 62〉	성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	71
〈표 63〉	부처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	71
〈표 64〉	연령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	72
〈표 65〉	직급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	73
〈표 66〉	흡연형태별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정도 .....	73
〈표 67〉	장차관의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정도 .....	74

## 전체 요약

- ☐ 21개 중앙부처 일반공무원 1,482명과 장차관 36명을 대상으로 2002. 8. 7.~ 8. 17(10일간) 체계적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흡연실태를 조사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 92.0%, 여성 8.0%이고, 연령대는 30,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직급은 6급 이하가 가장 많았음(45.5%).
- ☐ 중앙부처 일반공무원 중 39.9%(남자 43.3%, 여자 0.8%)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남자 공무원의 흡연율은 43.3%인데 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1998)에서는 67.6%, 서울시민조사(2002)에서는 55.3%임.
  - 여자 공무원의 흡연율은 0.8%로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6.7%, 서울시민조사(2002) 4.6%보다 낮고, 장차관 흡연율은 16.7%에 불과함.
- ☐ 흡연자의 91.5%가 매일흡연자이며,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19개 피가 가장 많음. 현재 비흡연자 중 51.5%는 흡연 경험이 없으며, 48.5%는 흡연 후 금연을 하였음.
- ☐ 현재 흡연자 중 69.7%가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하였음.
  - 금연기간은 1개월 미만이 42.3%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1년 이상 금연자도 11.4%를 차지하였음.
  - 금연에 실패한 이유로는 업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41.9%),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24.1%)이 가장 높았음.
- ☐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금연이유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 ‘주변의 금연 권유’가 주요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음.

- 가장 많이 사용된 금연 방법은 ‘자신의 의지’(91.8%)이었음.
- 금연 후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자가 74.6%이었으며, 건강상의 변화 내용은 가래 감소(68.9%), 피로감 감소(53.1%), 기침 감소(44.3%)의 순으로 높았음.
- ☐ 간접흡연이 건강에 피해를 준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92.7%로 매우 높았음.
  -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을 한 사람이 16.7%이며, 흡연자들 중에서도 8.7%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하였음.
- ☐ 정부청사에서의 흡연구역 구분에 대하여, 69.1%가 흡연구역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 정부청사 내부를 절대금연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70.8%가 찬성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38.9%가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31.9%는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건물로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효율적인 금연 실천을 위한 정책건의에는 흡연 및 금연구역의 철저한 구분 및 필요시설 설치,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 및 금연자에 대한 포상, 금연 교육 홍보 강화, 간부들의 솔선수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상세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 흡연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임.
  - 또한 흡연이 주원인인 폐암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음.
  - 타인의 흡연을 통해서 담배 연기를 본의 아니게 흡입하게 되는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도 심각함.
  -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총 사회적 손실액을 최대 6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집단임.
  - 공직사회에서 모범을 보일 때 전국민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 하겠음.
  - 흡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금연을 실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준수를 철저히 하게 될 때 우리나라 다른 계층의 흡연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임.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흡연실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음.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와 과거 흡연경험, 간접흡연의 피해정도,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흡연율을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음.

- 본 조사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것임.
  - － 1차 조사는 2002년 3월에 중앙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음.
  - － 2차 조사에서는 21개 정부부처의 공무원을 직급별, 각 부처별 인원별로 표본을 대상으로 2002년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 간 실시되었음.
  - － 1차 조사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는데, 무응답 비율이 많고 응답이 성실하지 않아서 응답의 신뢰성이 낮았음.
  -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조사에서는 확률추출법(probability sampling) 중의 하나인 체계적 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음.
- 공무원 흡연실태를 조사의 표본추출(sampling)은 우선 서울 및 과천 소재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총 7,6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음.
  - － 각 부처 내에서는 장·차관에서부터 9급까지 모든 직급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 21개 부처에서 직급별로 모집단의 인구에 비례하여 조사 대상 인원을 배정하였음. 단,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각 60%, 15%여서 이를 기준으로 표본 추출하였음.
  - － 표본수의 배정 후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 명단을 확보하여 직급별로 매 5번째를 표본으로 하는 체계적 표본추출방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음.
- 수거된 설문지는 1,555부였는데 이 중 무응답이 많아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 37부를 제외한 1,518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 일반공무원 응답자는 1,482명, 장차관 응답자는 36명임.

## 2. 연구결과

### 가. 흡연실태

#### 1) 흡연실태

- 흡연율: 중앙부처 공무원의 흡연율을 살펴보았더니 전체 1,482명 중 39.9% (남자 43.3%, 여자 0.8%)가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998년 실시한 20세 이상 국민의 흡연율에서는 일반성인 남자의 흡연율 67.6% 여자 흡연율 6.7%이었고, 2002년 실시한 서울시민조사의 흡연율은 남자 55.31%, 여자 4.58%로 나타났음. 이를 공무원과 비교하면 남자 공무원 43.3%(591명), 여자공무원 0.8%(1명)로 나타나, 남녀 공무원의 흡연율이 전체국민이나 서울 시민에 비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44.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40대로 39.7%, 20대 30.9%, 50대 이상 27.5%의 순이었음.
- 직급별 흡연율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음. 즉, 직급별 흡연율의 차이는 없었음.
- 부처별 흡연율을 살펴본 결과 흡연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예산처로 64.0%로 나타났고, 법제처 56.5%, 해양수산부 51.1%, 정보통신부 47.8%, 건설교통부 46.3%, 재정경제부 45.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흡연율이 낮은 부처는 여성부 16.7%, 국무조정실 24.0%, 노동부 27.8%, 보건복지부 27.9%, 문화관광부 29.9%의 순으로 파악되었음.
- 장차관 흡연율은 16.7%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2) 흡연빈도 및 양

- 매일 흡연 여부: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매일 흡연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91.5%는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8.5%만이 가끔씩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연령별로는 차이없이 대부분이 매일 흡연을 하고 있었고, 직급별로도 차이없이 매일 흡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즉, 중앙부처 공무원 중 흡연자는 대부분은 거의 매일 흡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장차관의 경우도 매일흡연자가 83.3%나 되었음.
- 하루 평균 흡연량: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19개피가 가장 많은 36.9%이었고, 그 다음이 10~14개피로 30.2%가 해당함. 즉, 흡연량은 하루 평균 반갑에서 3분의 2갑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개피 이상을 흡연하는 비율도 14.9%나 되었음. 반면 1~4개피의 소량 흡연자는 3.5%에 불과하여 흡연할 경우 흡연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 직급별 흡연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3) 금연노력

- 금연노력: 흡연자가 금연노력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69.7%나 되어 흡연자의 70% 가량이 금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든 연령군이 금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울러 직급별로도 유의한 차이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금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금연시도기간: 금연하였다면 최장 금연시도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한 결과 1개월 미만이 42.3%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미만은 22.9%로 나타나 65% 정도가 금연기간이 3개월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금연은 시도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음. 1년 이상을 금연을 하였다는 공무원도 11.4%나 되어 다소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줌.

- 금연에 실패한 이유: 금연에 실패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53.3%)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20.1%)였음.
-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45.4%),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28.3%)였음. 종합해 보면 업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41.9%),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 등(24.1%)으로 인해서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금연을 돕기 위해서는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회식에서의 권주, 권연을 자제하는 풍토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나. 과거 흡연실태

##### 1) 과거 흡연여부

- 과거 흡연 여부: 현재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경험을 물어 본 결과 48.1%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중 55.4%가 흡연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은 불과 2.6%에 그쳐 여성 공무원의 현재 흡연율뿐 아니라 흡연경험도 남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음.
  - 20대 중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9%, 30대는 39.3%, 40대는 52.3% 50대 이상은 66.7%로 연령이 높을수록 흡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급별, 부처별 흡연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장차관의 흡연 경험율이 일반 공무원의 흡연 경험율보다 낮았음.



## 2) 금연 시도 이유 및 방법

- 금연 시도 이유: 금연 시도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물어본 결과 1순위 대답의 63.1%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8.4%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로 나타났음. 가족이나 친구 등의 금연 권유로 시도한 15.4%이었음.
  - 즉, 금연을 시도하는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가 압도적이었음.
  - 그렇지만 주변의 금연 권유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금연 시도의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연 방법: 금연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1.8%가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했다고 밝혀 금연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금연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금연이 개인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홍보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됨.
-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금연 후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74.6%, 변화가 없다는 24.9%로 금연 후에 대부분이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 직급별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건강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형태: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금연 후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 그 결과 ‘가래가 감소하였다’ 68.9%, ‘피로감이 감소했다’ 53.1%, ‘기침의 감소’ 44.3%로 금연 후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두드러진 신체 증상임이 조사결과 밝혀졌음.

## 다. 간접흡연 및 금연관련 정책 평가

### 1)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의 흡연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있는가” 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여부를 묻은 질문에 16.9%가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남자(15.6%)보다는 여자들(31.4%)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7.3%, 30대에서 17.0%, 40대에서 16.5%, 50대 이상에서 14.3%로 20대에서 피해 경험이 많았음.
- 직급별로는 3급 이상에서 8.1%, 4급에서 16.2%, 5급에서 19.4%, 6급 이하에서 16.2%로 3급 이상에서 피해 경험이 가장 낮았음.
- 부처별로는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흡연 형태별로는 비흡연자의 22.4%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흡연자의 8.7%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 자신이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를 정기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본 질문에서 공무원의 42.7%가 건강상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고 50.0%가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있음을 92.7%가 인지하고 있었음.

- 성별로는 여자(72.9%)가 남자(40.0%)에 비하여 피해 인식이 더 높았음.
- 부처별로는 농림부(98.8%), 통일부(98.3%), 보건복지부(97.1%)의 순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서는 기획예산처(80.0%), 행정자치부(84.3%), 법제처(87.0%)임.

- 연령별 또한 직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자의 54.3%, 흡연자의 25.2%가 건강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3)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흡연실(구역)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즉,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50.2%로 69.1%가 긍정적인 답을 하였음.

- 성별 또한 연령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부처별로는 법제처(100.0%), 외교통상부(92.8%), 문화관광부(98.5%)는 흡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노동부(22.2%), 법무부(25.4%), 재정경제부(28.2%)는 흡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음.
- 직급별로는 뚜렷한 응답의 차이가 없었음.
- 흡연형태별로는 흡연자의 80.8%가, 또한 비흡연자의 65.6%가 흡연구역의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4) 정부 청사 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정부청사 내부를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공무원의 70.8%가 정부 청사 내 완전 금연을 찬성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38.9%가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31.9%는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절대금연구역을 다른 건물로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음.
- 부처별로는 여성부 61.1%, 법무부 52.4%, 보건복지부 45.6%의 순으로 찬성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법제처 56.5%, 기획예산처 48.0%, 행정자치부 43.0%의 순으로 반대 응답자가 높았음.
- 연령별 또는 직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흡연유형별 찬성 태도는 뚜렷하게 나타났음. 흡연자의 9.9%, 비흡연자의 46.7%가 정부청사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절대금연구역을 다른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음.

### 3. 결론

#### ☐ 공무원의 낮은 흡연율:

- 공무원들은 일반국민보다 흡연을 적게 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흡연하였으나 현재 금연하고 있는 비율도 비흡연자의 반에 가까워 공직사회에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장차관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흡연율도 적었을 뿐 아니라, 금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금연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 공직사회 흡연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음.

#### ☐ 권연 문화 지양 및 건전한 여가 개발:

- 향후에 절대금연구역이 모든 정부청사에 실시될 예정인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임.
- 공직사회에서 금연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금연문화가 전국민에

게 확산될 수 있으리라 봄.

- 이와 아울러 우리 나라 전체의 권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도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생활의 보급을 통해서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기제가 개발됨으로써 금연을 어렵게 하는 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금연 운동은 확산되어야 할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흡연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우리 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0년 인구 10만명당 110.4명이던 것이 2000년 인구 10만명당 122.1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암에 의한 사망자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통계청, 2001). 또한 흡연이 주원인인 폐암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 미만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50% 정도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24%, 여자의 경우는 6%, 전체적으로는 18%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순, 1993). 흡연자의 심장질환 유병률과 사망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배이며, 흡연의 양의 증가와 심장질환에의 노출과는 정비례한다. 따라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심장병에 의하여 사망할 확률이 70% 이상 높다. 반면 담배를 끊을 경우 10년만 끊어도 사망률은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임미영, 1993). 또한 흡연은 구강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폐암 등 각종 암의 주요 인자인데, 폐암의 경우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울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20배 이상 증가한다(박소연, 2001).

타인의 흡연을 통해서 담배 연기를 본의 아니게 흡입하게 되는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도 심각하다. 담배를 켜고 흡입하는 주류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흡입하게 되는 담배연기인 부류연의 성분 농도에 있어서 유해성분은 주류연보다 부류연에서 높다.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의 경우 주류연보다 부류연에서 231배 정도 높으며, 중금속의 경우 주류연에는 0.03~1.5ug/g cigarette smoked, 부류연에는 0.2~43ug/g cigarette smoked로 역시 부류

연에서 더 높게 나왔다(조성일, 2002). 따라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확률이 23%나 높다(Jiang He, et al., 1998).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및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5, 건강길라잡이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미국에서 흡연에 의한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직접의료비용 외에 부가적인 경제생산손실액이 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1991년) 흡연자가 내는 세수입은 78억달러인데 반해 이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0억달러 정도이며 흡연으로 인한 보건의료비는 25억달러(캐나다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결근, 생산성 감소 등 흡연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연간 비용손실액을 약 3,100달러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건강길라잡이, 2002).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총 사회적 손실액을 최대 6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규식(1995)의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6백억원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8년 김한중(2000)의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을 2조 7366~6조 264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공직사회에서 모범을 보일 때 전국민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 하겠다. 흡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금연을 실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준수를 철저히 하게 될 때 우리 나라 다른 계층의 흡연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흡연실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와 과거 흡연경험,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흡연율을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 2. 연구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듯이 흡연실태로서 흡연여부, 흡연정도, 흡연이유, 금연시도, 금연실패이유가 조사되었고, 과거 흡연실태로서 과거 흡연경험, 금연시도 이유, 금연방법,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흡연 및 금연관련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경험, 간접흡연 피해 정도,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금연확대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분포를 살펴본 뒤에 일반사항과 교차시켜 유의미한 것만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부처별, 성별, 연령별, 직급별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아울러 장차관의 경우는 따로 분석하여 각 문항의 끝 부분에 첨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공무원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담배 없는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주요 연구내용(일반공무원 및 장차관)

대분류	중분류	비고
흡연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여부</li> <li>· 흡연자만 응답</li> <li>· 매일 흡연 여부, 흡연량</li> <li>· 최장 금연 시도 기간</li> <li>· 금연실패 이유</li> </ul>	부처, 성, 연령, 직급별로 유의한 항목을 분석함.
과거 흡연실태 (현재 흡연자만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흡연 여부</li> <li>· 금연 시도 이유</li> <li>· 금연방법</li> <li>· 금연후 건강상의 변화</li> <li>· 건강의 좋아진 상태</li> </ul>	부처, 성, 연령, 직급별로 유의한 항목을 분석함  문: 어떻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간접흡연 및 금연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li> <li>·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li> <li>·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실천 정도</li> <li>·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대한 견해</li> </ul>	부처, 성, 연령, 직급별로 유의한 항목을 분석함.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부처</li> <li>· 성</li> <li>· 연령</li> <li>· 직급</li> </ul>	중앙부처 공무원만 조사함.



### 3. 연구방법

본 조사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1차 조사는 2002년 3월에 중앙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21개 정부부처의 공무원을 직급별, 각 부처별 인원별로 표본을 대상으로 2002년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 간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는데, 무응답 비율이 많고 응답이 성실하지 않아서 응답의 신뢰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조사에서는 확률추출법(probability sampling) 중의 하나인 체계적 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전체 공무원을 대표하도록 하였고, 조사원이 응답을 검토하여 불성실한 응답이 있으면 재조사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공무원 흡연실태를 조사의 표본추출(sampling)은 우선 서울 및 과천 소재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총 7,6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정부 부처에서 21개의 부처-건설교통, 과학기술,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를 선정하였다. 각 부처 내에서는 장·차관에서부터 9급까지 모든 직급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1개 부처에서 직급별로 모집단의 인구에 비례하여 조사 대상 인원을 배정하였다. 이때 여성 공무원 비율은 부처별 통계가 없어서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비율인 10% 내외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각 60%, 15%여서 이를 기준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조사는 각 부처의 인사과나 총무과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다.

표본수의 배정 후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 명단을 확보하여 직급별로 매 5번째를 표본으로 하는 체계적 표본추출방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부처별 표본 배정수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표본배정

(단위: 명)

구분	정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총계
건설교통	2	0	3	0	11	53	64	133
과학기술	2	0	1	0	7	23	27	60
교육인적자원부	3	0	2	2	10	20	25	62
국무조정실	1	1	3	0	8	10	3	26
국방부	2	0	1	0	6	32	38	79
기획예산처	2	1	2	0	7	24	14	50
노동부	2	0	1	0	2	6	9	20
농림부	2	0	1	1	7	33	42	86
문화관광부	2	0	2	1	11	18	34	68
법무부	2	0	1	2	7	14	39	65
법제처	1	1	1	1	4	11	5	24
보건복지부	2	0	1	2	10	22	33	70
산업자원부	2	1	4	3	13	72	75	170
여성부	2	0	1	0	2	6	9	20
외교통상부	2	0	1	7	24	5	5	44
재정경제부	2	1	3	1	11	53	37	108
정보통신부	2	0	2	0	6	28	30	68
통일부	2	1	1	2	7	24	23	60
해양수산부	2	0	2	0	9	35	41	89
행정자치부	2	1	2	0	8	47	66	126
환경부	2	0	1	1	13	24	31	72
총계	41	7	36	23	183	660	650	1,500

부처별 표집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133명, 과학기술부 60명, 교육인적자원부 62명, 국무조정실 26명, 국방부 79명, 기획예산처 50명, 노동부 20명, 농림부 86명, 문화관광부 68명, 법무부 65명, 법제처 24명, 보건복지부 70명, 산업자원부 170명, 여성부 20명, 외교통상부 44명, 재정경제부 108명, 정보통신부 68명, 통일부 60명, 해양수산부 89명, 행정자치부 126명, 환경부 72명 총 1,500명이다.

직급별로는 장·차관은 41명, 1급 7명, 2급 36명 3급 23명이었으며 4급은 183명, 5급은 650명, 6급 이하에서는 660명을 표집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1,555부였는데 이 중 무응답이 많아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 37부를 제외한 1,518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공무원 응답자는 1,482명, 장관 응답자는 36명이다. 실제 표본분포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 Ⅱ . 정부부처공무원 흡연실태

### 1. 중앙부처 공무원의 일반적 사항

중앙부처 공무원 흡연실태에 참여한 부처는 총 21개 부처—건설교통, 과학기술,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로 1차 조사시 조사 대상이 되었던 국정홍보처와 국가보훈처는 특성상 조사에서 제외하였고, 국무조정실을 새로이 포함하였다.

각 부처별 응답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되었듯이, 행정자치부의 응답자가 126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였고 노동부와 여성부가 각각 18명 1.2%였다. 본 응답률은 각 부처의 인원에 비례하여 표본 추출한 것이므로 표본 분포는 조사대상의 각 부처별 분포비율을 나타낸다. 1차 조사는 각 부처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였으나 2차 조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표본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직급별 분포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조사시 남성은 5,238명 70.1%, 여성은 1,446명 19.4%이었던 것이 2차 조사시에는 남성 1,164명 92.0% 여성은 118명으로 8.0%이었다.

조사 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55명 3.7%이고 30대는 595명 40.1% 40대는 647명으로 43.7% 50대는 182명으로 12.3%였다. 30대와 40대가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1차 조사시와 비슷하나 2차 조사시에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상은 1차 조사시에 9.5%였던 것이 3.7%에 불과하였다.

〈표 3〉 공무원 흡연실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체	7,472	100.0	1,482	100.0
부처				
건설교통	624	8.4	136	9.2
과학기술	276	3.7	58	3.9
교육인적자원부	407	5.4	64	4.3
국무조정실	-	-	25	1.7
국방부	500	6.7	77	5.2
기획예산처	81	1.0	50	3.4
노동부	292	4.0	18	1.2
농림부	412	5.5	85	5.7
문화관광부	365	4.9	67	4.5
법무부	352	4.7	63	4.3
법제처	93	1.2	23	1.6
보건복지부	366	4.8	68	4.6
산업자원부	430	5.7	168	11.3
여성부	86	1.1	18	1.2
외교통상부	627	8.4	42	2.8
재정경제부	377	5.0	110	7.4
정보통신부	385	5.1	67	4.5
통일부	164	2.2	59	4.0
해양수산부	387	5.2	88	5.9
행정자치부	538	7.2	126	8.5
환경부	375	5.0	70	4.7
국정홍보처	104	1.4	-	-
국가보훈처	231	3.0	-	-
성별				
남성	5238	70.1	1164	92.0
여성	1446	19.4	118	8.0
무응답	788	11.5	-	-
연령				
20대	708	9.5	55	3.7
30대	2709	36.3	595	40.1
40대	2551	34.1	647	43.7
50대 이상	661	8.9	182	12.3
무응답	842	11.2	3	0.2
직급				
3급 이상	224	3.0	77	5.2
4급	684	9.2	203	13.7
5급	1841	24.6	526	35.5
6급 이하	3983	53.3	676	45.6
무응답	740	9.9	-	-
경력				
5년이하	-	-	192	13.0
6~10년	-	-	323	21.8
11~20년	-	-	528	35.6
21년 이상	-	-	436	29.4
무응답	-	-	3	0.2

〈표 4〉 장차관의 일반사항

구분		장·차관	
		빈도(명)	백분율(%)
전체		36	100
부처	건설교통	2	5.6
	과학기술	2	5.6
	교육인적자원부	-	-
	국무조정실	1	2.8
	국방부	2	5.6
	기획예산처	2	5.6
	노동부	1	2.8
	농림부	2	5.6
	문화관광부	2	5.6
	법무부	2	5.6
	법제처	1	2.8
	보건복지부	2	5.6
	산업자원부	2	5.6
	여성부	2	5.6
	외교통상부	2	5.6
	재정경제부	1	2.8
	정보통신부	2	5.6
	통일부	2	5.6
	해양수산부	2	5.6
	행정자치부	1	2.8
	환경부	2	5.6
성별	남성	33	91.7
	여성	3	8.3
연령	20대	-	-
	30대	-	-
	40대	1	2.8
	50대 이상	34	97.2
	무응답	1	2.8
직급	장관	18	50.0
	차관	18	50.0
경력	5년 이하	8	22.2
	6~10년	-	-
	11~20년	1	2.8
	21년 이상	25	92.2
	무응답	1	2.8

직급별로 살펴보면 3급 이상은 77명으로 5.2%였고 4급은 203명으로 13.7%, 5급은 526명으로 35.5%였으며 6급 이하는 676명으로 45.5%였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5년 이하는 192명으로 13.0%였고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은 323명으로 21.8%였다. 11년에서 20년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28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공무원도 436명으로 29.4%에 달해 65%의 공무원들이 1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었다.

장차관은 총 36명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33명(91.7%), 여성이 3명(8.3%)이고, 연령은 대부분이 50대 이상(97.2%)이고, 경력은 21년 이상이 대부분이었다(92.2%).

## 2. 흡연실태

### 가. 흡연율

#### 1) 전체 흡연율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1,482명 중 39.9%가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그런데 공무원조사 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이 50%를 차지하는 다른 조사와 달리 8.0%에 불과해 공무원 전체의 흡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흡연율과 일반국민의 흡연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흡연율보다는 성별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자의 흡연율 공무원의 흡연율은 43.3%인데 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1998)에서는 67.6%, 서울시민조사(2002)에서는 55.31%로 남자공무원의 흡연율은 일반 남자 국민의 흡연율보다 낮았다(참조 표 1, 2 참조).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전체 국민의 흡연율보다 낮은 이유는 서울시 조사의 대상연령이 1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여자공무원의 경우도 일반국민 흡연율 6.7%, 서울시 여자의 흡연률 4.58%에 비해서 여자 공무원 0.8%로 가장 낮았다.

〈표 5〉 일반공무원 흡연율

(단위: %, 명)

흡연유무	빈도	백분율
예	591	39.9
아니오	891	60.1
계	1,482	100.0

〈참조 표 1〉 중앙부처 공무원 조사의 흡연율

(단위: %, 명)

구분	공무원조사 (2002. 8.)		
흡연	전체	남	여
	39.9 (591)	43.3(590)	0.8(1)
비흡연	전체	남	여
	60.1 (891)	56.7(1,364)	99.2(117)
계	100.0	100.0	100.0
(N)	(1,482)	(1,364)	(118)

주: 공무원조사대상 - 20세 이상.

일반국민이나 서울시민과의 전체 흡연율 비교는 성별구성의 차이로 인해서 무의미함. 성별을 통제한 후(즉, 성별비교)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 표 2〉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서울시민조사의 흡연율

(단위: %, 명)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서울시민 조사 (2002)		
흡연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35.5	67.6(3,454)	6.7(379)	27.68	55.31(4,848)	4.58(49)
비흡연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64.4	32.4(1,656)	93.3((5284)	72.32	44.69(3,917)	94.42(10,5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773)	(5,110)	(5,663)	(19,360)	(8,765)	(10,604)

주: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 - 20세 이상, 서울시민조사 연령 - 15세 이상

매일 흡연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남자공무원 매일흡연자의 비율이 39.6%인데 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1998)에서는 64.2%, 서울시민조사에서는 51.89%로 일반남자에 비하여 공무원남자의 매일흡연자 비율이 낮았다(참조 표 3, 4 참조).



여성의 경우도 흡연율이 0.8%로, 성인여자 5.9%, 서울시민 3.89%에 비해 여성 공무원의 매일 흡연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가끔 흡연자의 비율은 남자공무원의 과거흡연자 비율이 3.7%로 일반국민 비율 3.4% 서울시민 비율 3.42%보다 약간 더 높았다. 남자공무원의 과거흡연자 비율은 31.5%인데 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1998)에서는 15.7% 서울시민조사에서는 15.77%로 일반 남자에 비하여 남자공무원의 과거흡연자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즉, 남자공무원은 흡연을 하다가 금연으로 바꾼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흡연경험에 있어서 세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여성공무원 2.5%, 일반여성 2.8%, 서울시민 1.9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참조 표 3〉 중앙부처 공무원 조사의 흡연 및 비흡연율

(단위: %, 명)

구분		공무원조사 (2002. 8.)		
		전체	남	여
흡연	매일 흡연	36.5	39.6	0.8
	가끔 흡연	3.4	3.7	-
비흡연	과거 흡연	29.1	31.5	2.5
	흡연경험 무	31.0	25.3	96.6
계(N)		100.0 (1,482)	100.0 (1,364)	100.0 (118)

〈참조 표 4〉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서울시민조사의 흡연 및 비흡연율

(단위: %, 명)

구분		20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서울시민 조사 (2002)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흡연	매일흡연	33.5	64.2	5.9	25.75	51.89	3.89
	가끔흡연	2.0	3.4	0.8	1.93	3.42	0.69
비흡연	과거흡연	8.9	15.7	2.8	8.22	15.77	1.90
	흡연경험무	55.5	16.8	90.5	64.10	28.91	93.52
계(N)		100.0 (10,773)	100.0 (5,110)	100.0 (5,663)	100.0 (19,360)	100.0 (8,765)	100.0 (10,604)

## 2) 성별 흡연율

<표 6>에는 성별 흡연율을 제시하였는데 남자 43.3%(591명), 여자 0.8%(1명)로 나타나,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차 조사의 경우 흡연율은 남자 39.7%, 여자 2%로 나타나, 남자의 흡연율은 2차 조사의 경우가 1차보다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여자의 흡연율이 2차조사 시 낮게 나타난 이유는 1차조사는 공무원 전수에 대한 조사이었던데 반해, 2차 조사는 공무원 명단으로부터 매 n번째 사례를 추출한 체계적 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여자 공무원응답자들이 자신의 흡연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향후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무기명이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6〉 공무원 성별 흡연율

(단위: %, 명)

흡연유무	남자	여자	계
예	590( 43.3)	1( 0.8)	591( 39.9)
아니오	774( 56.7)	117( 99.2)	891( 60.1)
계	1,364(100.0)	118(100.0)	1,482(100.0)

 $\chi^2=81.464^{***}$ ,  $p<.001$ 

## 3) 연령별 흡연율

연령별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44.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40대로 39.7%, 20대 30.9%, 50대 이상 27.5%의 순이었다. 1차 조사의 경우는 40대 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35.1%, 50대 29.2%, 20대 24.8%, 순으로 조사되었다. 1, 2차 모두 30~4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1차에서는 20대의 흡연율이 24.8% 가장 낮았으나, 2차에서는 50대 이상의 흡연율이 27.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상의 차이는 1차 조사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2차 조사에서 양자간에 응답자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1차 조사는 연령에서 무응답이 11%나 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4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에 대한 대체적인 분포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7〉 공무원 연령별 흡연율

(단위: %, 명)

흡연유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예	17( 30.9)	267( 44.9)	257( 39.7)	50( 27.5)	591( 40.0)
아니오	38( 69.1)	328( 55.1)	390( 60.3)	132( 72.5)	888( 60.0)
계	55(100.0)	595(100.0)	647(100.0)	182(100.0)	1,479(100.0)

$\chi^2=19.711^{***}$ ,  $p<.001$

#### 4) 직급별 흡연율

다음에는 공무원의 흡연율을 직급별로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표 8>에 제시하였듯이 직급별 흡연율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급별 흡연율의 차이는 없었다. 6급 이하의 흡연율은 43.2%, 3급 이상 39.0%, 4급 38.4%, 5급 36.4%의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1차 조사의 경우 6급 이하 남자 공무원의 흡연율은 46.9%로 가장 높았으며, 5급 41.8%, 4급 34.0%, 3급 이상 30.2%의 순이었다. 1차 2차 조사 모두 6급 이하 하위직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표 8〉 공무원 직급별 흡연율

(단위: %, 명)

흡연유무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예	30( 39.0)	78( 38.4)	191( 36.4)	292( 43.2)	591( 39.9)
아니오	47( 61.0)	125( 61.6)	335( 63.7)	384( 56.8)	891( 60.1)
계	77(100.0)	203(100.0)	526(100.0)	676(100.0)	1,482(100.0)

$\chi^2=6.099$ ,  $p=.107$

## 5) 부처별 흡연율

부처별 흡연율은 살펴본 결과 흡연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예산처로 64.0%로 나타났고, 법제처 56.5%, 해양수산부 51.1%, 정보통신부 47.8%, 건설교통부 46.3%, 재정경제부 45.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흡연율이 낮은 부처는 여성부 16.7%, 국무조정실 24.0%, 노동부 27.8%, 보건복지부 27.9%, 문화관광부 29.9%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9〉 공무원 부처별 흡연율

(단위: %, 명)

부처	예	아니오	인원
건설교통부	46.3 ⑤	53.7	136
과학기술부	34.5	65.5	58
교육인적자원부	35.9	64.1	64
국무조정실	(2) 24.0	76.0	25
국방부	44.2	55.8	77
기획예산처	64.0 ①	36.0	50
노동부	(3) 27.8	82.2	18
농림부	38.8	61.2	85
문화관광부	(5) 29.9	70.1	67
법무부	34.9	65.1	63
법제처	56.5 ②	43.5	23
보건복지부	(4) 27.9	72.1	68
산업자원부	32.7	67.3	168
여성부	(1) 16.7	83.3	18
외교통상부	42.9	57.1	42
재정경제부	45.5 ⑥	54.5	110
정보통신부	47.8 ④	52.2	67
통일부	33.9	66.1	59
해양수산부	51.1 ③	48.9	88
행정자치부	38.9	61.1	126
환경부	41.4	58.6	70
계	39.9 (591)	60.1 (891)	100.0 (1482)

 $\chi^2=46.709^{***}$ ,  $p<.001$ 

주: 흡연자 중 여성은 1인이므로 부처비교시 성별을 통제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1차 조사에서는 남자 공무원 중 흡연률이 높은 부처는 문화관광부(54.5%), 산업자원부(49.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이 두 부처의 흡연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장차관 흡연율

장차관 36명 중 흡연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16.7%만이 흡연하고 대부분은 금연하고 있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장차관의 흡연율은 매우 낮았다.

〈표 10〉 장차관 흡연율

(단위: %, 명)

흡연유무	빈도	백분율
예	6	16.7
아니오	30	83.3
계	36	100.0

#### 나. 흡연 빈도

##### 1) 매일 흡연 여부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매일 흡연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91.5%는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8.5%만이 가끔씩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 흡연자 중 연령별 매일 흡연 여부

(단위: %, 명)

매일 흡연유무	빈도	계
매일 피움	541	91.5
가끔씩 피움	50	8.5
계	591	100.0

## 2) 연령 및 직급별 매일 흡연 여부

연령별로는 차이없이 대부분이 매일 흡연을 하고 있었고, 직급별로도 차이없이 매일 흡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중앙부처 공무원 중 흡연자는 대부분은 거의 매일 흡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흡연자중 연령별 매일 흡연 여부

(단위: %, 명)

매일 흡연유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매일 피움	15( 88.2)	248( 92.9)	229( 89.1)	49( 98.0)	541( 91.5)
가끔씩 피움	2( 11.8)	19( 7.1)	28( 10.9)	1( 2.0)	50( 8.5)
계	17(100.0)	267(100.0)	257(100.0)	50(100.0)	591(100.0)

 $\chi^2=5.524$ ,  $p=.137$ 

〈표 13〉 흡연자 중 직급별 매일 흡연 여부

(단위: %, 명)

매일 흡연유무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매일 피움	28( 93.3)	69( 88.5)	169( 88.5)	275( 94.2)	541( 91.5)
가끔씩 피움	2( 6.7)	9( 11.5)	22( 11.5)	17( 5.8)	50( 8.5)
계	17(100.0)	267(100.0)	257(100.0)	50(100.0)	591(100.0)

 $\chi^2=6.010$ ,  $p=.111$ 

## 3) 장차관 매일 흡연 여부

매일 흡연여부에 있어서 흡연하는 장차관의 대부분인 83.3%(5명)이 매일 흡연하고 있고, 16.7%만(1명)이 가끔씩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공무원의 매일 흡연율 91.5%보다 낮았다.

〈표 14〉 장차관 흡연자 중 연령별 매일 흡연 여부

(단위: %, 명)

매일 흡연유무	빈도	계
매일 피움	5	83.3
가끔씩 피움	1	16.7
계	6	100.0

## 다. 하루 평균 흡연량

## 1) 일반공무원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19개피가 가장 많은 36.9%이었고, 그 다음이 10~14개피로 30.2%가 해당한다. 즉, 흡연량은 하루 평균 반 갑에서 3분의 2갑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개피 이상을 흡연하는 비율도 14.9%나 되었다. 반면 1~4개피의 소량 흡연자는 3.5%에 불과하여 흡연할 경우 흡연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직급별 흡연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5〉 흡연자 중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 명)

하루 평균 흡연량	빈도	백분율
1~4개피	17	3.5
5~9개피	71	14.5
10~14개피	148	30.2
15~19개피	181	36.9
20개피 이상	73	14.9
계	490	100.0

주: 연령별,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 장차관

장차관 하루 평균 흡연량은 10~14개피가 가장 많은 40.0%이었고, 그 다음은 산발적으로 나타나 각각 1명씩 각 범주에 속하고 있었다. 장차관의 하루 평균 흡

연량은 15~19개피의 범주가 가장 많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장차관 흡연자 중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 명)

하루 평균 흡연량	빈도	백분율
1~4개피	1	20.0
5~9개피	1	20.0
10~14개피	2	40.0
15~19개피	-	-
20개피 이상	1	20.0
계	6	100.0

주: 연령별,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라. 금연노력

### 1) 전체 금연노력

흡연자가 금연노력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69.7%나 되어 흡연자의 70% 가량이 금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흡연자 중 금연노력 여부

(단위: %, 명)

금연노력 여부	빈도	계
예	412	69.7
아니오	179	30.3
계	591	100.0

### 2) 연령 및 직급별 금연노력

금연노력은 연령별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든 연령군이 금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직급별로도 유의한 차이없이 모든 직급 공무원이 금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8〉 흡연자 중 연령별 금연노력 여부

(단위: %, 명)

금연노력 여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예	10( 58.8)	183( 68.8)	186( 72.4)	33( 66.0)	412( 69.7)
아니오	7( 41.2)	84( 31.5)	71( 27.6)	17( 34.0)	179( 30.3)
계	17(100.0)	267(100.0)	257(100.0)	50(100.0)	591(100.0)

 $\chi^2=2.317$ ,  $p=.509$ 

〈표 19〉 흡연자 중 직급별 금연노력 여부

(단위: %, 명)

금연노력 여부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예	21( 70.0)	52( 66.7)	131( 68.6)	208( 71.2)	412( 69.7)
아니오	9( 30.0)	26( 33.3)	60( 31.4)	84( 28.8)	179( 30.3)
계	17(100.0)	267(100.0)	257(100.0)	50(100.0)	591(100.0)

 $\chi^2=0.778$ ,  $p=.855$ 

## 3) 장차관 금연노력

장차관 중 금연노력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00.0%로 전원이 금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표 20〉 장차관 금연노력 여부

(단위: %, 명)

금연노력 여부	빈도	계
예	6	100.0
아니오	-	-
계	6	100.0

## 마. 금연시도기간

## 1) 일반공무원

금연을 시도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개월 미만이 42.3%로 가장 많았고, 1~3개

월 미만은 22.9%로 나타나 65% 정도가 금연기간이 3개월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연은 시도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금연을 할 경우 금연에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볼 때 6개월~1년 이상 금연자(9.2%)와 1년 이상 금연자(11.4%)가 다시 흡연을 시작한 것을 볼 때 금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 금연시도자들의 금연기간

(단위: %, 명)

최장 금연 기간	빈도	백분율
1 개월 미만	174	42.3
1~3개월 미만	94	22.9
3~6개월 미만	58	14.1
6개월~1년 미만	38	9.2
1년 이상	47	11.4
계	411	100.0

## 2) 장차관

장차관이 금연을 시도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1년 미만이 모두 33.3%로 똑같이 나왔다. 1년 이상 금연한 장차관도 33.3%나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금연을 위한 전략을 잘 제시하면 장차관은 일반공무원보다 용이하게 금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장차관의 금연기간

(단위: %, 명)

최장 금연 기간	빈도	백분율
1 개월 미만	2	33.3
1-3개월 미만	-	-
3-6개월 미만	-	-
6개월-1년 미만	2	33.3
1년 이상	2	33.3
계	6	100.0

## 바. 금연에 실패한 이유

### 1) 일반공무원

금연에 실패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53.3%)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20.1%)였다.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서’(45.4%),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28.3%)였다. 종합해 보면 업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41.9%),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24.1%) 등으로 인해서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을 돕기 위해서는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회식에서의 권주, 권연을 자제하는 풍토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3〉 금연에 실패한 2가지 이유(중복응답임)

(단위: %, 명)

금연 실패 이유	1순위	2순위	응답률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	20.1	-	10.9	20.1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원하여서	17.2	0.6	9.6	17.7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53.3	28.3	41.9	77.0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서	6.2	45.4	24.1	44.3
몸무게가 늘어서	0.2	6.3	3.0	5.5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2.6	16.3	8.9	16.3
기타	0.2	3.1	1.6	2.9
계	100.0 (418)	100.0 (350)	100.0 (768)	183.7

주: 연령별,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수 백분율이란 유효한 응답자 418명을 100.0%로 했을 때의 사례수 비율을 나타낸 것임.

금연시도기간에 따라 금연 실패 원인이 다르게 작용한다. 6개월 미만 금연 시도자와 6개월 이상 금연시도자의 금연 실패 이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6개월 이전에 금연을 실패한 사람의 이유는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회식 또는 술자리의 유혹, 금연 후의 신체적 변화, 주위사람들의 유혹의 순이다. 그러나 금연 6개월 이후에 금연을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는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회식 또는 술자리의 유혹,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순이다.

〈표 23-1〉 금연시도기간 6개월 미만자의 금연에 실패한 이유

(단위: %, 명)

금연 실패 이유	1순위	2순위	중복응답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	22.9	-	12.4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원하여서	18.6	0.7	10.4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50.3	30.8	41.4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서	5.8	45.5	24.1
몸무게가 늘어서	0.3	5.4	2.6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1.8	14.0	7.4
기타	0.3	3.6	1.8
계	100.0 (328)	100.0 (279)	100.0 (607)

주: 16.077 p=0.013

즉, 금연시도기간에 상관없이 업무와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회식 또는 술자리의 유혹이 금연실패의 원인이라는 하나, 그 다음 원인으로 금연 초기에 실패자는 신체적인 변화 부적응 또는 주위의 흡연유혹인데 비하여, 금연 6개월 이후의 금연 실패자는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금연을 실패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연 시도 초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에의 적응과 주위사람의 금연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금연성공요인이며, 금연 시도 6개월 이후인 안정기에는 금연시도자 자신의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인한 흡연으로의 회귀를 방지하는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테이지 이론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금연자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6개월 이상 금연시도자 중에서도 금연 실패자가 27%라는 높은 비율인 점을 주목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더욱 세심한 금연추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3-2〉 6개월 이상 금연시도자의 금연에 실패한 이유

(단위: %, 명)

금연 실패 이유	1순위	2순위	중복응답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	9.0	-	5.0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원하셔서	12.4	-	6.9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65.2	17.1	44.0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서	7.9	45.7	24.5
몸무게가 늘어서	-	10.0	4.4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5.6	25.7	14.5
기타	-	1.4	0.6
계	100.0 (89)	100.0 (70)	100.0 (159)

주: 11.674 p=0.040

## 2) 장차관

장차관이 금연에 실패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 1) 스테이지이론(stages of change theory)은 James Prochaska에 의하여 개발되고 발전된 이론으로 건강생활에 대한 단계를 계획이전(precontemplation)단계, 계획(contemplation)단계, 준비(preparation)단계, 실행(action)단계, 지속(maintenance)단계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계획이전단계는, 변화계획이 없는 단계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를 갖지 않으며,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계획단계는 어느 정도 새로운 행동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인 준비단계는 구체적인 행동실행 계획이 잡혀져있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가 행동단계이며, 유지단계는 중독성 또는 습관성이던 불건전한 행동이 없어진 단계로, 새로운 생활습관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이다(Prochaska, J. O., & Velicer, W. F., 1997,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health behavior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2, 38~48).

스트레스'(66.73%)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권하여서'(33.3%)였다.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50.0%),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25.0%) 및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25.0%)였다. 종합해 보면 업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83.3%),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 등(33.3%)과 주위 사람들의 권연으로 인해서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차관의 금연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고, 회식에서의 권주, 권연을 자제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권연의 풍토가 근절되어야 하겠다.

〈표 24〉 장차관이 금연에 실패한 2가지 이유(중복응답임)

(단위: %, 명)

금연 실패 이유	1순위	2순위	응답률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	-	-	-	-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권하여서	33.3	-	20.0	33.3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66.7	25.0	50.0	83.3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	-	50.0	20.0	33.3
몸무게가 늘어서	-	-	-	-
언제라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	25.0	10.0	16.7
기타	-	-	-	-
계	100.0 (6)	100.0 (6)	100.0 (10)	166.7

주: 연령별,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수 백분율이란 유효한 응답자 10명을 100.0%로 했을 때의 사례수 비율을 나타낸 것임.

### 3. 과거 흡연실태

#### 가. 과거 흡연 여부

현재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한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지, 있

다면 담배를 피우다 끊었는지에 대한 공무원의 흡연경험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흡연 경험이 있는 비율은 48.1%였고, 과반수가 넘는 51.5%는 흡연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즉, 비흡연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은 과거에도 전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비흡연 공무원 흡연경험

(단위: 명, %)

흡연경험	빈도	백분율
없다	459	51.5
있다	432	48.1
계	891	100.0

#### 1) 성별 흡연경험

비흡연자 공무원의 흡연경험은 성별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공무원 중 55.4%가 흡연경험이 있었는데 반해, 여성공무원은 불과 2.6%만이 과거에 흡연경험이 있었다. 여성공무원은 현재 흡연율뿐 아니라 과거의 흡연 경험도 남성공무원과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26〉 비흡연자 공무원 성별 흡연경험

(단위: 명, %)

흡연경험	남자	여자	계
없다	345( 44.6)	114( 97.4)	459( 51.5)
있다	429( 55.4)	3( 2.6)	432( 48.5)
계	774(100.0)	117(100.0)	891(100.0)

$\chi^2=113.710^{***}$ ,  $p<.001$

#### 2) 연령별 흡연경험

비흡연 공무원의 흡연경험은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은 고연령일수록 많았다. 50대 이상의 과거 흡연율은 66.7%로 가장 높았고, 40대 52.3%, 30대 39.3%, 20대 28.9%의 순이었다.

〈표 27〉 비흡연 공무원 연령별 흡연경험

(단위: 명, %)

흡연경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없다	27( 71.1)	199( 60.7)	186( 47.7)	43( 33.3)	456( 51.4)
있다	11( 28.9)	129( 39.3)	204( 52.3)	88( 66.7)	432( 48.6)
계	38(100.0)	328(100.0)	390(100.0)	132(100.0)	888(100.0)

$\chi^2=36.777^{***}$ ,  $p<.001$

### 3) 직급별 흡연 경험

공무원의 흡연경험은 직급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3급 이상에서 55.3%, 4급 55.2%, 5 164명 49.0% 6급 이하 45.1%으로 나타나 급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8〉 비흡연 공무원 직급별 흡연경험

(단위: %, 명)

흡연경험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없다	21( 44.7)	56( 44.8)	171( 51.0)	211( 54.3)	459( 51.5)
있다	26( 55.3)	69( 55.2)	164( 49.0)	173( 45.1)	432( 48.5)
계	47(100.0)	125(100.0)	335(100.0)	384(100.0)	891(100.0)

$\chi^2=4.977$ ,  $p=.173$

### 4) 부처별 흡연 경험

과거에 흡연경험 비율이 높은 부처는 환경부(63.4%), 국무조정실(63.2%), 산업자원부(56.6%), 과학기술부(55.3%), 정보통신부, 통일부 각(53.8%), 건설교통부(53.4%) 등이었다.



반면 전체 흡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현재 비흡연자의 51.5%인 것을 토대로 부처별 흡연 경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50% 이상 흡연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총 10개 부처였다. 이중 흡연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부로 현재 비흡연 공무원의 80%가 흡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비흡연 공무원 부처별 흡연경험

부처	(단위: 명, %)		
	없다	있다	계
건설교통부	34(46.6)	39(53.4)	73(100.0)
과학기술부	17(44.7)	21(55.3)	38(100.0)
교육인적자원부	30(73.2)	11(26.8)	41(100.0)
국무조정실	7(36.8)	12(63.2)	19(100.0)
국방부	23(53.5)	20(46.5)	43(100.0)
기획예산처	11(61.6)	7(38.9)	18(100.0)
노동부	7(53.8)	6(46.2)	13(100.0)
농림부	20(38.5)	32(61.5)	52(100.0)
문화관광부	27(57.4)	20(42.6)	47(100.0)
법무부	24(58.5)	17(41.5)	41(100.0)
법제처	6(60.0)	4(40.0)	10(100.0)
보건복지부	28(57.1)	21(42.9)	49(100.0)
산업자원부	49(43.4)	64(56.6)	113(100.0)
여성부	12(80.0)	3(20.0)	15(100.0)
외교통상부	13(54.2)	11(45.8)	24(100.0)
재정경제부	30(50.0)	30(50.0)	60(100.0)
정보통신부	12(34.3)	23(53.8)	35(100.0)
통일부	18(36.2)	21(53.8)	39(100.0)
해양수산부	24(55.8)	19(44.2)	43(100.0)
행정자치부	52(67.5)	25(32.5)	77(100.0)
환경부	15(36.6)	26(63.4)	41(100.0)
계	459(51.5)	432(48.5)	891(100.0)

##### 5) 장차관 흡연경험

장차관의 흡연경험을 살펴보면 현재 비흡연자 30명 중 63.3%(19명)이 과거에

도 흡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7%(11명)만이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8.1%가 흡연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일반공무원의 흡연경험에 비해 장차관의 흡연경험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비흡연 장차관 흡연경험

(단위: 명, %)		
흡연경험	빈도	백분율
없다	19	63.3
있다	11	36.7
계	30	100.0

#### 나. 금연 시도 이유

##### 1) 일반 공무원

과거 흡연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금연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해달라는 질문에 공무원의 63.1%가 ‘건강상의 이유’를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금연 권유’(15.4%)로 인해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금연권유로 인해 금연을 시도했다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의 대답이 2순위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서적 등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순위가 8.4%였고 2순위가 25.2%로 나타났는데,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를 선전하는 것이 금연을 홍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흡연구역이 축소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회적인 금연분위기로 인해 끊었다고 대답한 경우는 1순위에서는 0.7%였으나 2순위에서는 7.0%에 달해 건강에도 해롭다는 1차적인 이유뿐 아니라 사회적인 금연의 분위기가 금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 할 것이다.

〈표 31〉 금연을 시도한 2가지 이유

금연 시도 이유	(단위: 명, %)	
	1순위	2순위
건강상의 이유로	279( 63.1)	-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금연권유로	68( 15.4)	79( 26.2)
텔레비전, 서적 등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나서	37( 8.4)	76( 25.2)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27( 6.1)	98( 32.5)
흡연구역의 축소, 벌금 부과 등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때문에	3( 0.7)	21( 7.0)
기타	28( 6.3)	28( 9.3)
계	443(100.0)	302(100.0)

주: 연령별,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 장차관

과거 흡연경험이 있는 장차관 11명을 대상으로 금연 시도 이유를 조사한 결과 81.8%(9명)가 1순위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고, ‘가족과 친구의 권유’ 및 ‘텔레비전과 서적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가 각각 1명으로 9.1%였다. 금연 시도 이유로 두 번째로 꼽은 것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금연권유가 33.3%였고, 텔레비전, 서적 등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가 50%였으며 기타 의견도 16.7%였다.

〈표 32〉 비흡연 장차관 금연 시도 이유

(단위: 명, %)

금연 시도 이유	1순위	2순위
건강상의 이유로	9( 81.8)	-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금연권유로	1( 9.1)	2( 33.3)
텔레비전, 서적 등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나서	1( 9.1)	3( 50.0)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
흡연구역의 축소, 벌금 부과 등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때문에	-	-
기타	-	1( 16.7)
계	11(100.0)	6(100.0)

주: 연령별,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 금연방법

##### 1) 일반 공무원

금연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41명의 응답자 중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05명 91.8%가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했다고 밝혀 금연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연을 홍보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금연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금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홍보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금연패치를 이용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2.3%였으며 금연교실에 입소했다 1.4%, 금연침을 이용하였다는 0.5%에 불과했다.

〈표 33〉 금연방법

(단위: 명, %)		
금연 시도 방법	빈도	백분율
자신의 의지로 끊음	405	91.8
금연침 시술	2	0.5
금연패치이용	10	2.3
금연교실입소	6	1.4
금연초 사용	-	-
기타	18	4.1
계	441	100.0

주: 연령 및 직급별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장차관

장차관의 금연방법은 100%가 ‘자신의 의지’로 끊은 것으로 응답해 일반공무원에 비해 금연침이나 금연패치, 금연초 등 보조 수단으로 담배를 끊은 것보다 자신의 의지로 끊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장차관 금연방법

(단위: 명, %)		
금연 시도 방법	빈도	백분율
자신의 의지로 끊음	11	100.0
금연침 시술	-	-
금연패치이용	-	-
금연교실입소	-	-
금연초 사용	-	-
기타	-	-
계	11	100.0

## 라.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 1)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금연 후 건강상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해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74.6%

로 대부분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대답하였다. 건강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4.9%에 불과하였고, 소수인 0.5%(2명)는 금연 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여 금단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단위: 명, %)

변화유무	빈도	백분율
변화없다	110	24.9
건강이 좋아졌다	329	74.6
기타(건강이 나빠졌다)	2	0.5
계	441	100.0

## 2) 연령별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금연 후 건강상 변화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과 관계없이 대부분은 금연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20대는 54.5%였고 30대는 76.6% 40대 73.0%가 50대 이상 75.9%로 연령에 상관없이 금연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다.

〈표 36〉 공무원 연령별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단위: 명, %)

변화유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변화없다	5( 45.5)	30( 23.4)	54( 26.5)	21( 23.0)	110( 25.5)
건강이 좋아졌다	6( 54.5)	98( 76.6)	149( 73.0)	66( 75.9)	319( 74.0)
기타	-	-	1( 0.5)	1( 1.1)	2( 0.5)
계	11(100.0)	128(100.0)	204(100.0)	88(100.0)	431(100.0)

$$\chi^2=7.410, p=.494$$

4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1명씩 금연 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금연 후 금단 현상이나 기타 다른 심리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 직급별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금연 후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급 이상의 공무원이 다른 직급에 비해 건강이 좋아졌다고 지적인 비율이 높아 84.6%에 달한다. 반면, 5급은 다른 직급에 비해 금연후에도 건강상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29.4%). 특이한 점은 4급에서만 건강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응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표 37〉 공무원 직급별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단위: %, 명)

변화유무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변화없다	4( 15.4)	4( 20.3)	48( 29.4)	44( 25.4)	110( 25.5)
건강이 좋아졌다	22( 84.6)	53( 76.8)	115( 70.6)	129( 74.6)	319( 74.0)
기타(나빠졌다)	-	2( 2.9)	-	-	2( 0.5)
계	26(100.0)	69(100.0)	163(100.0)	173(100.0)	431(100.0)

$\chi^2=14.003$ ,  $p=.030$

## 4) 장차관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장차관은 금연 후 11명 모두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장차관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단위: 명, %)

변화유무	빈도	백분율
변화없다	-	-
건강이 좋아졌다	11	100.0
계	11	100.0

## 5) 일반 공무원 금연 후 건강상태 변화 형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자 중에서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금연 후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가래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68.9%이었고, 그 다음이 피로감이 감소했다는 응답으로 53.1%가 지적하였다. 기침이 감소하였다는 응답도 과반수에 가까운 44.3%,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린다는 응답도 응답자의 1/3이 34.6%로 나타났다. 즉, 금연후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집중력이 증가했다와 소화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30.5%로 나타났고, 두통이 감소했다와 피부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23.3%이었으며, 현기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10.7%였다.

〈표 39〉 일반 공무원 금연 후 건강상의 변화

건강상의 변화 양상	(단위: 명, %)		
	예	아니오	계
현기증 감소	34(10.7)	284(89.3)	318(100.0)
두통감소	74(23.3)	244(76.7)	318(100.0)
집중력증가	97(30.5)	221(69.5)	318(100.0)
피로감감소	169(53.1)	149(46.9)	318(100.0)
소화기능향상	97(30.5)	221(69.5)	318(100.0)
가래감소	219(68.9)	99(31.1)	318(100.0)
기침감소	141(44.3)	177(55.7)	318(100.0)
숨가쁜 현상 감소	87(27.4)	231(72.6)	318(100.0)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덜걸림	110(34.6)	208(65.4)	318(100.0)
성생활능력의 향상	35(11.0)	283(89.0)	318(100.0)
피부가 좋아짐	74(23.3)	244(76.7)	318(100.0)
기타	22( 6.9)	296(93.1)	318(100.0)

#### 4. 간접흡연과 금연관련 정책

##### 가. 최근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최근 1년 간 다른 사람의 흡연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있는가’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여부를 묻은 질문에 16.9%가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3.5%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의 28.6%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전혀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53.1%인 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표 40〉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단위: 명, %)

피해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246	16.9
없다	787	54.1
잘 모르겠다	421	29.0
계	1,454	100.0

#### 1) 성별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자의 15.6%, 여자의 31.4%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단위: 명, %)

피해경험	남자	여자	계
있다	209( 15.6)	37( 31.4)	246( 16.9)
없다	735( 55.0)	52( 44.1)	787( 54.1)
잘 모르겠다	392( 29.3)	29( 24.6)	421( 29.0)
계	1,336(100.0)	118(100.0)	1,454(100.0)

$\chi^2=19.072^{***}$ ,  $p<.001$

#### 2) 연령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대에서 27.3%, 30대에서 17.0%, 40대에서 16.5%, 50대 이상에서 14.3%로 20대에서 피해경험이 많았다.

〈표 42〉 연령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단위: 명, %)

흡연경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있다	15( 27.3)	100( 17.0)	104( 16.5)	25( 14.3)	244( 16.8)
없다	271( 49.1)	352( 59.8)	326( 51.6)	82( 46.9)	787( 54.2)
잘 모르겠다	13( 23.6)	137( 23.3)	202( 32.0)	68( 9.9)	420( 29.0)
계	55(100.0)	589(100.0)	632(100.0)	175(100.0)	1,451(100.0)

 $\chi^2=25.839^{***}$ ,  $p<.001$ 

## 3) 직급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급 이상에서 8.1%, 4급에서 16.2%, 5급에서 19.4%, 6급 이하에서 16.2%로 3급 이상에서 피해경험이 가장 낮았다.

〈표 43〉 직급별 지난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단위: 명, %)

흡연경험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있다	6( 8.1)	32( 16.2)	100( 19.4)	108( 16.2)	246( 16.9)
없다	40( 54.1)	98( 49.5)	266( 51.6)	383( 57.5)	787( 54.1)
잘 모르겠다	28( 37.8)	68( 34.3)	150( 29.1)	175( 26.3)	421( 29.0)
계	74(100.0)	198(100.0)	516(100.0)	666(100.0)	1,454(100.0)

 $\chi^2=13.983^*$ ,  $p<.05$ 

## 4) 부처별 지난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은 5.6~28.0%의 비율로 부처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획예산처 28.0%, 노동부 22.2%, 법제처 21.7%, 보건복지부 7.5%, 국방부 5.6%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간의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44〉 부처별 지난 1년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단위: 명, %)

부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건설교통부	25(18.7)	71(53.0)	38(28.4)	134(100.0)
과학기술부	8(13.8)	29(50.0)	21(36.2)	58(100.0)
교육인적자원부	9(14.1)	44(68.8)	11(17.2)	64(100.0)
국무조정실	5(21.7)	13(56.5)	5(21.7)	23(100.0)
국방부	4( 5.6)	51(70.8)	17(23.6)	72(100.0)
기획예산처	14(28.0)	20(40.0)	16(32.0)	50(100.0)
노동부	4(22.2)	9(50.0)	5(27.8)	18(100.0)
농림부	17(20.0)	40(47.1)	28(32.9)	85(100.0)
문화관광부	14(21.5)	31(47.7)	20(30.8)	65(100.0)
법무부	12(19.0)	17( 1.9)	17(27.0)	63(100.0)
법제처	5(21.7)	4( 0.4)	3(13.0)	23(100.0)
보건복지부	5( 7.5)	21( 2.4)	20(29.9)	67(100.0)
산업자원부	30(18.2)	64( 7.2)	47(28.5)	165(100.0)
여성부	3(16.7)	3( 0.3)	5(27.8)	18(100.0)
외교통상부	7(17.5)	11( 1.2)	14(35.6)	40(100.0)
재정경제부	19(17.4)	30( 3.4)	31(28.4)	109(100.0)
정보통신부	14(21.2)	23( 2.6)	15(22.7)	66(100.0)
통일부	8(13.6)	21( 2.4)	26(44.1)	59(100.0)
해양수산부	11(12.9)	19( 2.1)	27(31.8)	85(100.0)
행정자치부	23(19.2)	25( 2.8)	34(28.3)	120(100.0)
환경부	9(12.9)	26( 2.9)	21(30.0)	70(100.0)
계	246(16.9)	787(54.1)	421(29.0)	1,454(100.0)

 $\chi^2=46.692$ ,  $p=0.217$ 

## 5) 흡연형태별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경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을 흡연 여부에 따라 조사한 결과 비흡연자의 22.4%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자 자신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8.7%로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흡연자들조차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흡연형태별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단위: 명, %)

피해경험	흡연자	비흡연자	계
있다	51( 8.7)	195( 22.4)	246( 16.9)
없다	393( 67.4)	394( 45.2)	787( 54.1)
잘 모르겠다	139( 23.8)	282( 32.4)	421( 29.0)
계	583(100.0)	871(100.0)	1,454(100.0)

$\chi^2=78.917^{***}$ ,  $p<.001$

## 6) 장차관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장차관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흡연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22.2%),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4명(38.9%)으로 일반 공무원의 응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46〉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 장차관

(단위: 명, %)

피해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8	22.2
없다	14	38.9
잘 모르겠다	14	38.9
계	36	100.0

## 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 1)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자신이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를 정기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상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본 질문에서 공무원의 42.7%가 ‘건강상의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50.0%가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있음을 92.7%가 인지하고 있었다.

〈표 47〉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단위: 명, %)

흡연경험	빈도	백분율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627	42.7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736	50.0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49	3.3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14	1.0
잘 모르겠다	44	3.0
계	1,470	100.0

## 2) 성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자신이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를 정기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상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본 질문에서 ‘건강상의 피해가 클 것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여자의 72.9%, 남자의 40.0%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담배의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8〉 성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단위: 명, %)

인지정도	남자	여자	계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541( 40.0)	86( 72.9)	627( 42.7)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707( 52.3)	29( 24.6)	736( 50.1)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47( 3.5)	2( 1.7)	49( 3.3)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14( 1.0)	0( 0.0)	14( 1.0)
잘 모르겠다	43( 3.2)	1( 0.8)	44( 3.0)
계	1352(100.0)	118(100.0)	1467(100.0)

$\chi^2=48.366^{***}$ ,  $p<.001$

## 3) 부처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인지도는 부처별 차이가 있는데,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부서는 농림부(98.8%), 통일부(98.3%), 보건복지부(97.1%), 과학기술부(96.5%), 국방부(95.9%), 문화관광부(95.6%)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서는 기획예산처(80.0%), 행정자치부(84.3%), 법제처(87.0%)이다.

〈표 49〉 부처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단위: 명, %)

부처	건강상의 피해 있다.	건강상의 피해있다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큰 것이다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것이다				
건설교육부	120( 89.6)	43(32.1)	77(57.5)	9(6.7)	1( 0.7)	4(3.0)	134(100.0)
과학기술부	56( 96.5)	26(44.8)	30(51.7)	0(0.0)	0( 0.0)	2(3.4)	58(100.0)
교육인적자원부	58( 90.6)	24(37.5)	34(53.1)	1(1.6)	0( 0.0)	5(7.8)	64(100.0)
국무조정실	24(100.0)	13(54.2)	11(45.8)	0(0.0)	0( 0.0)	0(0.0)	24(100.0)
국방부	71( 95.9)	30(40.5)	41(55.4)	1(1.4)	0( 0.0)	2(2.7)	74(100.0)
기획예산처	40( 80.0)	22(44.0)	18(36.0)	3(6.0)	6(12.0)	1(2.0)	50(100.0)
노동부	17( 94.5)	7(38.9)	10(55.6)	0(0.0)	0( 0.0)	1(5.6)	18(100.0)
농림부	84( 98.8)	45(52.9)	39(45.9)	0(0.0)	1( 1.2)	0(0.0)	85(100.0)
문화관광부	64( 95.6)	33(49.3)	31(46.3)	2(3.0)	0( 0.0)	1(1.5)	67(100.0)
법무부	59( 93.7)	34(54.0)	25(39.7)	3(4.8)	0( 0.0)	1(1.6)	63(100.0)
법제처	20( 87.0)	12(52.2)	8(34.8)	3(13.0)	0( 0.0)	0(0.0)	23(100.0)
보건복지부	66( 97.1)	32(47.1)	34(50.0)	1(1.5)	0( 0.0)	1(1.5)	68(100.0)
산업자원부	158( 94.6)	63(37.7)	95(56.9)	2(1.2)	1( 0.6)	6(3.6)	167(100.0)
여성부	17( 94.4)	15(83.3)	2(11.1)	0(0.0)	0( 0.0)	1(5.6)	18(100.0)
외교통상부	28( 90.5)	16(38.1)	22(52.4)	2(4.8)	1( 2.4)	1(2.4)	42(100.0)
재정경제부	102( 92.7)	56(50.9)	46(41.8)	5(4.5)	1( 0.9)	2(1.8)	110(100.0)
정보통신부	64( 95.5)	27(40.3)	37(55.2)	1(1.5)	0( 0.0)	2(3.0)	67(100.0)
통일부	58( 98.3)	22(37.3)	36(61.0)	1(1.7)	0( 0.0)	0(0.0)	59(100.0)
해양수산부	80( 90.9)	32(36.4)	48(54.5)	4(4.5)	0( 0.0)	4(4.5)	88(100.0)
행정자치부	103( 84.3)	47(38.8)	55(45.5)	9(7.4)	3( 2.5)	7(5.8)	121(100.0)
환경부	65( 92.9)	28(40.0)	37(52.9)	2(2.9)	0( 0.0)	3(4.3)	70(100.0)
계	1,363( 92.8)	627(42.7)	736(50.1)	49(3.3)	14( 1.0)	44(3.0)	1,470(100.0)

$\chi^2=166,435^{***}$ ,  $p<.001$

#### 4) 연령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인지도는 20대에서 건강상의 피해

가 클 것이라는 응답률이 56.4%이며, 50대 이상에서는 40.4%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표 50〉 연령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단위: 명, %)

인지정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31( 56.4)	262( 44.3)	259( 40.3)	72( 40.4)	627( 42.7)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19( 34.5)	287( 48.5)	341( 53.1)	89( 50.0)	736( 50.1)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2( 3.6)	19( 3.2)	20( 3.1)	8( 4.5)	49( 3.3)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2( 3.6)	6( 1.0)	3( 0.5)	3( 1.7)	14( 1.0)
잘 모르겠다	1( 1.8)	18( 3.0)	19( 3.0)	6( 3.4)	44( 3.0)
계	55(100.0)	592(100.0)	642(100.0)	178(100.0)	1467(100.0)

$$\chi^2=16.176, p=0.441$$

##### 5) 직급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인지도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의 34.2%만이 건강상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4급은 43.0%, 5급은 47.3%, 6급 이하는 39.9%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51〉 직급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단위: %, 명)

인지정도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26(34.2)	86(43.0)	247(47.3)	268(39.9)	627(42.7)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44(57.9)	101(50.5)	240(46.0)	351(52.2)	736(50.1)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4(5.3)	6(3.0)	15(2.9)	24(3.6)	49(3.3)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0(0.0)	2(1.0)	5(1.0)	7(1.0)	14(1.0)
잘 모르겠다	2(2.6)	5(2.5)	15(2.9)	22(3.3)	44(3.0)
계	76(100.0)	200(100.0)	522(100.0)	672(100.0)	1470(100.0)

$$\chi^2=11.004, p=0.529$$

## 6) 흡연 형태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정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인지는 흡연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비흡연자의 54.3%가 건강상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흡연자는 25.2%만이 건강상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2〉 흡연형태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단위: 명, %)

피해인지정도	흡연자	비흡연자	계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149( 25.2)	479( 54.3)	627( 42.7)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362( 61.6)	374( 42.4)	736( 50.0)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38( 6.5)	11( 1.2)	49( 3.3)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12( 2.0)	2( 0.2)	14( 1.0)
잘 모르겠다	28( 4.8)	16( 1.8)	44( 3.0)
계	588(100.0)	882(100.0)	1,470(100.0)

 $\chi^2=147.320^{***}$ ,  $p<.001$ 

## 7) 장차관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 정도

장차관의 55.6%가 건강상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1.7%가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있음을 93.3%가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건강상의 피해인지정도는 약간 높았다.

〈표 53〉 장차관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인지정도

(단위: 명, %)

흡연경험	빈도	백분율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20	55.6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15	41.7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1	2.8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	-
잘 모르겠다	-	-
계	36	100.0



#### 다.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흡연실(구역)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즉,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50.2%로 69.1%가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그러나 30.9% 약 1/3이 흡연구역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하여 정부 청사내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54〉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흡연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77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737	50.2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38	23.0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5	7.9
계	1,467	100.0

#### 1) 성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는다.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자의 18.7%와 50.3%, 여자의 21.2%와 50.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55〉 성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실천정도	(단위: 명, %)		
	남자	여자	계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52( 18.7)	25( 21.2)	277(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678( 50.3)	59( 50.0)	737( 50.2)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11( 23.1)	27( 22.9)	338( 23.0)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8( 8.0)	7( 5.9)	115( 7.8)
계	1349(100.0)	118(100.0)	1467(100.0)

$$\chi^2=0.959, p=0.811$$

## 2) 부처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부처별로는 흡연 및 금연구역 실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르다. 법제처(100.0%), 외교통상부(92.8%), 문화관광부(98.5%)는 흡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노동부(22.2%), 법무부(25.4%), 재정경제부(28.2%)는 흡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부서이다.

〈표 56〉 부처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단위: 명, %)

부처	잘 지켜지고 있다	잘 지켜지고 있다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93( 69.4)	19(14.2)	74(55.2)	35(26.1)	6( 4.5)	134(100.0)
과학기술부	46( 79.3)	5( 8.6)	41(70.7)	9(15.5)	3( 5.2)	58(100.0)
교육인적자원부	51( 79.7)	17(26.6)	34(53.1)	10(15.6)	3( 4.7)	64(100.0)
국무조정실	19( 82.6)	5(21.7)	14(60.9)	2( 8.7)	2( 8.7)	23(100.0)
국방부	57( 77.0)	21(28.4)	36(48.6)	16(21.6)	1( 1.4)	74(100.0)
기획예산처	29( 78.0)	13(26.0)	26(52.0)	4( 8.0)	7(14.0)	50(100.0)
노동부	4( 22.2)	0( 0.0)	4(22.2)	12(66.7)	2(11.1)	18(100.0)
농림부	46( 54.1)	7( 8.2)	39(45.9)	28(32.9)	11(12.9)	85(100.0)
문화관광부	66( 98.5)	21(31.3)	45(67.2)	1( 1.5)	0( 0.0)	67(100.0)
법무부	16( 25.4)	1( 1.6)	15(23.8)	25(39.7)	22(34.9)	63(100.0)
법제처	23(100.0)	19(82.6)	4(17.4)	0( 0.0)	0( 0.0)	23(100.0)
보건복지부	57( 83.9)	22(32.4)	35(51.5)	8(11.8)	3( 4.4)	68(100.0)
산업자원부	98( 59.0)	13( 7.8)	85(51.2)	56(33.7)	12( 7.2)	166(100.0)
여성부	16( 88.9)	7(38.9)	9(50.0)	2(11.1)	0( 0.0)	18(100.0)
외교통상부	39( 92.8)	15(35.7)	24(57.1)	2( 4.8)	1( 2.4)	42(100.0)
재정경제부	31( 28.2)	1( 0.9)	30(27.3)	53(48.2)	26(23.6)	110(100.0)
정보통신부	43( 64.2)	6( 9.0)	37(55.2)	21(31.3)	3( 4.5)	67(100.0)
통일부	50( 84.8)	8(13.6)	42(71.2)	5( 8.5)	4( 6.8)	59(100.0)
해양수산부	75( 85.2)	27(30.7)	48(54.5)	11(12.5)	2( 2.3)	88(100.0)
행정자치부	105( 87.5)	44(36.7)	61(50.8)	12(10.0)	3( 2.5)	120(100.0)
환경부	40( 57.2)	6( 8.6)	34(48.6)	26(37.1)	4( 5.7)	70(100.0)
계	1,014( 69.1)	277(18.9)	737(50.2)	338(23.0)	115( 7.8)	1467(100.0)

 $\chi^2=469,560^{***}$ ,  $p<.001$

### 3) 연령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연령에 따른 흡연 및 금연구역 실천에 대한 만족도는 20대에서 흡연구역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58.1%인데 비하여 30대에서는 68.1%, 40대에서는 71.7%, 50대 이상에서는 69.2%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다.

〈표 57〉 연령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8( 14.5)	118( 20.0)	124( 19.4)	27( 15.1)	277(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24( 43.6)	284( 48.1)	335( 52.3)	93( 52.3)	736( 50.3)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 25.5)	139( 23.5)	140( 21.9)	43( 24.2)	336( 23.0)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9( 16.4)	50( 8.5)	41( 6.4)	15( 8.4)	115( 7.9)
계	55(100.0)	591(100.0)	640(100.0)	176(100.0)	1,464(100.0)

$$\chi^2=12.845, p=0.380$$

### 4) 직급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직급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 실천 정도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었다. 매우 잘 지켜지고 있거나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급 이상에서는 76.0%, 4급은 75.3%, 6급 이하는 70.9%인데 반해 5급은 63.4%로 5급은 다른 직급보다 약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표 58〉 직급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단위: %, 명)

구 분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0( 13.3)	44( 22.0)	80( 15.4)	143( 21.3)	277(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47( 62.7)	107( 53.5)	250( 48.0)	333( 49.6)	737( 50.2)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2( 16.0)	39( 19.5)	140( 26.9)	147( 21.9)	338( 23.0)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 8.0)	10( 5.0)	51( 9.8)	48( 7.2)	115( 7.8)
계	75(100.0)	200(100.0)	521(100.0)	671(100.0)	1467(100.0)

$$\chi^2=22.470^*, p<.05$$

## 5) 흡연 형태별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흡연형태별 별도의 흡연구역에서 실천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는 확실히 나타난다. 흡연자의 80.8%가 잘 지켜지고 있거나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흡연자의 65.6%만인 잘 지켜지고 있거나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9〉 흡연형태별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단위: 명, %)

흡연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흡연자	비흡연자	계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71( 27.7)	53( 13.8)	277( 18.9)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136( 53.1)	199( 51.8)	737( 50.2)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3( 16.8)	97( 25.3)	338( 23.0)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 2.3)	35( 9.1)	115( 7.9)
계	588(100.0)	882(100.0)	1,467(100.0)

 $\chi^2=46.123^{***}$ ,  $p<.001$ 

## 6) 장차관의 별도의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흡연실(구역) 구분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33.3%,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50.0%로 83.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일반 공무원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표 60〉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실천 정도

(단위: 명, %)

흡연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빈도	백분율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2	33.3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18	50.0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6	16.7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계	36	100.0

#### 라. 정부 청사 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정부청사내부를 완전금연 건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를 묻은 결과 38.9%가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고, 31.9%는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절대금연구역을 다른 건물로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의 70.8%가 정부 청사 내 완전 금연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정도

(단위: 명, %)

금연구역확대의견	빈도	백분율
반대	427	29.1
찬성	571	38.9
찬성 (정부 청사의 건물에도 확대 적용)	469	31.9
기타	1	0.1
계	1,468	100.0

#### 1) 성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정부청사내부를 완전금연 건물로 지정하는데 대하여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하였다. 정부청사를 완전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 공무원의 30.5%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반면, 여자공무원의 12.7%만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완전금연건물을 정부 청사외의 건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공무원의 30.0%만이 찬성을 하였지만, 여자 공무원의 54.2%인 반 이상이 찬성 표시를 하였다.

〈표 62〉 성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반대	412( 30.5)	15( 12.7)	427( 29.1)
찬성	532( 39.4)	39( 33.1)	571( 38.9)
찬성 (정부 청사 외 건물에도 확대 적용)	405( 30.0)	64( 54.2)	469( 31.9)
기타	1( 0.1)	0( 0.0)	1( 0.1)
계	1350(100.0)	118(100.0)	1468(100.0)

 $\chi^2=32,997^{***}$ ,  $p<.001$ 

## 2) 부처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정부청사내부를 완전금연 건물로 지정하는데 대하여 법제처 56.5%, 기획예산처 48.0%, 행정자치부 43.0%의 순으로

〈표 63〉 부처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부처	반대	찬성	찬성 및 확대적용	기타	계
건설교통부	39(29.1)	57(42.5)	38(28.4)	0(0.0)	134(100.0)
과학기술부	10(7.2)	26(44.8)	22(37.9)	0(0.0)	58(100.0)
교육인적자원부	22(34.4)	19(29.7)	23(35.9)	0(0.0)	64(100.0)
국무조정실	7(29.2)	8(33.3)	9(37.5)	0(0.0)	24(100.0)
국방부	21(28.4)	24(32.4)	29(39.2)	0(0.0)	74(100.0)
기획예산처	24(48.0)	22(44.0)	4( 8.0)	0(0.0)	50(100.0)
노동부	5(27.8)	9(50.0)	4(22.2)	0(0.0)	18(100.0)
농림부	23(27.1)	32(37.6)	29(34.1)	1(1.2)	85(100.0)
문화관광부	15(22.4)	30(44.8)	22(32.8)	0(0.0)	67(100.0)
법무부	12(19.0)	18(28.6)	33(52.4)	0(0.0)	63(100.0)
법제처	13(56.5)	8(34.8)	2( 8.7)	0(0.0)	23(100.0)
보건복지부	10(14.7)	27(39.7)	31(45.6)	0(0.0)	68(100.0)
산업자원부	47(28.3)	74(44.6)	45(27.1)	0(0.0)	166(100.0)
여성부	3(16.7)	4(22.2)	11(61.1)	0(0.0)	18(100.0)
외교통상부	11(26.2)	18(42.9)	13(31.0)	0(0.0)	42(100.0)
재정경제부	32(29.1)	44(40.0)	34(30.9)	0(0.0)	100(100.0)
정보통신부	23(34.3)	26(38.8)	18(26.9)	0(0.0)	67(100.0)
통일부	14(23.7)	21(35.6)	24(40.7)	0(0.0)	59(100.0)
해양수산부	27(31.0)	30(34.5)	30(34.5)	0(0.0)	87(100.0)
행정자치부	52(43.0)	39(32.2)	30(24.8)	0(0.0)	121(100.0)
환경부	17(24.3)	35(50.0)	18(25.7)	0(0.0)	70(100.0)
계	427(29.1)	571(38.9)	469(31.9)	1(0.1)	1,468(100.0)

 $\chi^2=104,466^{***}$ ,  $p<.001$

반대 응답자가 높았다. 이는 흡연비율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어, 법제처나 기획예산처는 다른 부처보다 흡연율이 높아 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대로 정부 청사를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금연건물을 정부 청사외의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안에 여성부 61.1%, 법무부 52.4%, 보건복지부 45.6%의 순으로 찬성 응답비율이 높았다. 여성부, 보건복지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흡연율이 낮아 이러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 3) 연령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 확대 방침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청사의 절대금연건물 지정 및 기타 건물에로의 확대에 대하여 20대에서 23.6%, 30대에서 29.6%, 40대에서 33.4%, 50대 이상에서 43.3%가 찬성하였다.

〈표 64〉 연령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반대	18( 32.7)	181( 30.6)	192( 30.0)	36( 20.2)	427( 29.1)
찬성	24( 43.7)	234( 39.6)	235( 36.7)	77( 43.3)	570( 38.9)
찬성(정부 청사 외 건물에도 확대 적용)	13( 23.6)	175( 29.6)	214( 33.4)	65( 36.5)	467( 31.9)
기타	0( 0.0)	1( 0.2)	0( 0.0)	0( 0.0)	1( 0.1)
계	55(100.0)	591(100.0)	641(100.0)	178(100.0)	1,465(100.0)

$$\chi^2=15.841, p=0.199$$

### 4) 직급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 확대 방침에 대하여 직급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부청사를 완전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3급 이상 공무원의 25.0%, 4급 공무원의 26.0%, 5급 공무원의

31.7%, 6급 이하 공무원의 28.5%이었다. 반대로 정부청사를 완전 금연 건물로 지정하고, 완전금연건물을 정부 청사와 건물외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급 이상 공무원의 38.2%, 4급 공무원의 33.5%, 5급 공무원의 29.0%, 6급 이하 공무원의 33.1%이었다.

〈표 65〉 직급별 정부 청사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반대	19( 25.0)	52( 26.0)	165( 31.7)	191( 28.5)	427( 29.1)
찬성	28( 36.8)	80( 40.0)	205( 39.3)	258( 38.5)	571( 38.9)
찬성 (정부 청사 외 건물에도 확대 적용)	29( 38.2)	67( 33.5)	151( 29.0)	222( 33.1)	469( 31.9)
기타	0( 0.0)	1( 0.1)	0( 0.0)	0( 0.0)	1( 0.1)
계	76(100.0)	200(100.0)	521(100.0)	671(100.0)	1,465(100.0)

$\chi^2=11.696$ ,  $p=0.231$

##### 5) 흡연유형별 정부 청사 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정부 청사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흡연유형별 찬성 태도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흡연자의 53.3%가 정부청사의 절대금연구역지정을 반대하였으나, 비흡연자의 12.9%만이 반대 응답을 하였다. 또한 흡연자의 9.9% 비흡연자의 46.7%가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절대금연건물을 다른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응답을 하였다.

〈표 66〉 흡연형태별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정도

(단위: 명, %)

찬성정도	흡연자	비흡연자	계
반대	313( 53.3)	114( 12.9)	427( 29.1)
찬성	215( 36.6)	356( 40.4)	571( 38.9)
찬성(정부 청사 외 건물에도 확대 적용)	58( 9.9)	411( 46.7)	469( 31.9)
기타	1( 0.2)	-	1( 0.1)
계	587(100.0)	881(100.0)	1,467(100.0)

$\chi^2=349.384^{***}$ ,  $p<.001$



## 6) 장차관의 정부 청사 내 금연구역의 확대에 대한 의견

장차관의 8.3%만이 정부 청사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를 반대하였고, 41.7%가 정부청사내부를 완전금연 건물로 지정하는데 찬성하였고, 50.0%가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절대금연구역을 다른 건물로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차관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연구역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표 67〉 장차관의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찬성 정도  
(단위: 명, %)

흡연경험	반대	백분율
반대	3	8.3
찬성	15	41.7
찬성(정부 청사의 건물에도 확대 적용)	18	50.0
기타	-	-
계	36	100.0

## 마. 금연 실천 유도를 위한 정책 건의

장차관의 경우 36명 중 2명이 정책건의를 하였는데, 건의 내용은 금연교육의 강화 내용으로 금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흡연실 이용강화 및 금연교육지도의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효율적인 금연 실천을 위한 정책건의에는 일반공무원 256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을 종합 분류한 결과 ① 흡연 및 금연구역의 철저한 구분 및 필요시설 설치(144명), ②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40명), ③ 금연 교육 홍보 강화(34명), ④ 강력한 금연 정책의 시행(20명), ⑤ 금연자에 대한 포상(9명), ⑥ 간부들의 솔선수범(9명), ⑦ 기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흡연 및 금연구역의 구분 및 필요시설 설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흡연구역을 건물 밖으로 제한하는 의견, 1건물 1흡연구역 또는 1층 당

1흡연구역 등 흡연장소에 개수에 대한 의견과 흡연실에 필요한 공기정화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흡연실을 꾸미고, 흡연실의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 일반사무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흡연실의 적절한 환경조성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또한 흡연실 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요청 및 근무시간 이후에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 각 사무실에 담배 연기 감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불시 순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시 명단의 공개, 당직을 서게 하거나 승진 등에 반영하는 등의 벌칙 또는 1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금연자에 대한 포상: 금연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금연수당 등 포상을 하거나,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금연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간부들의 솔선수범: 금연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간부급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간부급이 집무실에서 담배를 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강력한 금연 정책의 시행: 담배값 인상, 구내 매점에서의 담배 판매금지, 담배자판기 철거, 정부청사 내에서의 담배소지 금지 등의 현재의 법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금연 교육 홍보 강화: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금연의 필요성, 담배의 해독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사 내에 금연을 유도하는 포스터의 상시 부착 또는 금연유도 또는 흡연구역에 대한 방송을 청사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금연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필요한 교육 및 금연유도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안도 제시되었다.

### Ⅲ. 결론

이상으로 중앙 공무원의 흡연실태를 살펴보았다. 공무원의 흡연율은 39.9%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남성공무원은 43.3%가 여성공무원은 0.8%만이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의 흡연율은 16.7%에 불과해 일반공무원에 비해 더 낮았다.

흡연자의 91.5%가 매일 흡연하고 있었고, 흡연량은 15~19개피 정도로 1갑이 약간 되지 않는다. 흡연자의 69.7%는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업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업무의 과중함과 부담, 그리고 회식에서의 권연 문화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흡연자 중 과거에 흡연경험이 있는 비율은 48.1%에 달하고 있다. 금연에 성공한 공무원이 금연을 한 이유로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 '주변의 권유'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금연방법은 '자신의 의지'(91.8%)이었다. 금연후에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자가 74.6%나 되었으며, 특히 가래 감소, 피로감 감소, 기침 감소 등을 지적하였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피해를 준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92.7%로 매우 높았다. 지난 1년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험을 한 사람이 16.7%이며, 흡연자들 중에서도 8.7%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정부청사에서의 흡연구역 구분에 대하여, 69.1%가 흡연구역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청사 내부를 절대금연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70.8%가 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38.9%가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31.9%는 정부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건물로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금연 실천을 위한 정책건의에는 흡연 및 금연구역의 철저한 구분 및 필요시설 설치,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 및 금연자에 대한 포상, 금연 교육 홍보 강화, 간부들의 솔선수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공무원들은 일반국민보다 흡연을 적게 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흡연 하였으나 현재 금연하고 있는 비율도 비흡연자의 반에 가까워 공직사회에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차관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흡연율도 적었을 뿐 아니라, 금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금연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 공직사회 흡연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향후에 절대금연구역이 모든 정부청사에 실시될 예정인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이다. 공직사회에서 금연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금연문화가 전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아울러 우리 나라 전체의 권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도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생활의 보급을 통해서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기제가 개발됨으로써 금연을 어렵게 하는 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금연 운동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건강길라잡이, <http://health.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김한중 외,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및 흡연을 감소전략개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복지부, 2000.
- 박소연, 『흡연에 의한 신체의 병리학적 변화』,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1, 11~26.
- 임미영, 『관상동맥성 심장질환과 A유형 행동양상과의 관계』, 『국민보건연구소 연구논총』, 제3권 1호, 국민보건연구소, 1993.
- 조성일, 『담배연기의 유해성분 및 흡연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보건복지부, 2002.
- 통계청, 『2000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1.
- Jiang He, et al., "Passive smoking an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a meta analysis of epidemiologic studies", 38th annual conference on cardiovascular disease epidemiology and prevention, March 18~21, 1998, Santa Fe, New mexico
- Kim, Joung Soon, "Current perspectives of cerebrovascular disease and hypertension-related diseases in Korea", 『보건학논집』, Vol.29, 1992.
- Lee, Kyu shik, *The Consequences of Smoking in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 Health Service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1995.
- Prochaska, J. O., & Velicer, W. F., 1997,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health behavior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2, 38~48.

## 부 록

1. 공무원의 금연실천을 위한 정책건의
2. 조사표

## 부록 1. 공무원의 금연실천을 위한 정책건의

### ● 흡연 및 금연지역의 구분 및 필요시설 설치 (144)

- 1건물 1장소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각 건물내 옥상을 개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배려
- 각 사무실에 담배연기 감지 장치를 설치
- 각 층 또는 사무실 근처에 흡연실 설치
- 각 층마다 흡연구역 지정
- 각 층마다 흡연실 설치
- 각 층별 흡연실을 겸한 휴게실의 설치가 필요
- 각 층별로 흡연실 마련
- 각 층에 흡연실 설치 필요
- 건물내 완전 금연 실시 및 강력한 제재 조치 강구
- 건물내 흡연구역 지정
- 건물내 흡연실을 폐지해야 함.
-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건물내에 흡연장소 필요
- 건물안에서는 절대로 흡연할 수 없도록 강력히 시행하여 주길
- 건물외부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
-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바람.
- 공공건물에서의 흡연을 법에 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 공기 정화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흡연실 설치
- 금연건물 지정 조속 시행 필요
- 금연건물 지정 확대
- 금연건물 지정은 찬성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제공하길
-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구역의 환경개선도 요망
- 금연구역 확대

-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철저히 분리하길
-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키기만 해도 효과가 클 것임.
- 금연구역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금연 실시
- 금연구역지정에 대해 법 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
- 금연구역확대 정책
- 깃연실 확대 지정
- 독서나 휴식공간 마련
- 별도 흡연실 마련 필요
- 별도 흡연실 설치
- 별도의 흡연실 설치
- 별도의 흡연장소 마련
- 별도의 흡연장소 설치
- 보다 현실적인 흡연구역 확보 필요
- 사무실, 복도 등 해서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스며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사무실내 흡연금지
- 실내 및 통로 계단에서의 절대 금연 조치 요망
- 실내 흡연실 설치
- 열악한 흡연실 개선 필요
- 일부구간에 흡연실 유지
- 적절한 공간에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함.
- 절대금연 건물로 지정
- 절대금연건물 지정 추진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흡연자 권리도 보장해 주길
- 정부청사 절대금연건물 지정이 조기 시행되길
- 정화시설 구비된 흡연실 설치
- 창사내 흡연실, 휴식공간 확대
-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청사내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함.



- 청사내 유리창을 환기가 잘될 수 있도록 교체
- 청사내 환기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함.
- 청사내 휴게 공간 확대
- 청사내를 절대 금연 장소로 지정
- 청사내에 흡연실 설치 필요
- 청사를 금연지역으로 지정. 비흡연자에게 금연수당 지급
- 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 청사밖에 흡연구역을 설정
- 청사밖에 흡연실 설치
- 청사밖에서도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최소한 2개층의 일부 한 칸 정도는 흡연구역이 있어야 함.
- 출입문 근처도 흡연구역 지정
- 충분한 흡연실 보장
- 층별 흡연 구역 설정
- 층별 흡연공간 구축
- 층별 흡연실 별도 설치
- 층별 흡연실 설치
- 층별 흡연실 설치
- 층별로 흡연실 설치 요망
- 쾌적하고 편안한 흡연공간 설치
- 쾌적한 분위기의 흡연실 확보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쾌적한 흡연 환경 조성
- 쾌적한 흡연실 설치
- 통풍과 공기청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길
- 통풍시설 요망
- 화장실 복도 등에서 흡연금지.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내 절대 금연
- 환기가 잘 되도록 대책 수립
- 환기시설 구비된 흡연실 마련,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물품 비치

- 환기장비 보안 요
- 환풍기등이 설치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환풍시설 및 공기청정기 설치
- 휴게소 설치
- 흡연 공간 설치 필요
- 흡연 구역 설정
- 흡연 또는 비흡연 여부에 따라서 과원 구성
- 흡연 장소 확대 필요
- 흡연건물 지정
- 흡연건물을 별도 지정
- 흡연공간 확대
- 흡연공간 확보 필요
- 흡연공간내 환기통 내지 환기구 설치
- 흡연공간을 확대해야 함.
- 흡연공간의 확보 및 쾌적성 필요
- 흡연구역 및 시설을 설치
- 흡연구역 별도 설치
- 흡연구역 설정
- 흡연구역 설치
- 흡연구역 설치시 비흡연 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 흡연구역 우선 확보
- 흡연구역 운영을 철저히 해 주길
- 흡연구역 지정
- 흡연구역 지정 필요
- 흡연구역 확대 요망
- 흡연구역 확보
- 흡연구역을 마련
- 흡연구역을 적절히 지정
- 흡연구역의 확대 필요
-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흡연방지의 지속적이고 강한 조치 필요, 간부급의 실내 흡연 금지하는 분위기 조성
- 흡연실 마련
- 흡연실 별도 설치
- 흡연실 설치
- 흡연실 설치
- 흡연실 설치, 흡연장소 공기청정기 설치
- 흡연실 설치, 흡연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흡연실 설치. 공기청정 시설 등을 의무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 흡연실 시설 및 환경개선 필요
- 흡연실 시설 확충
- 흡연실 여건 개선 필요
- 흡연실 이용 강화 및 금연 계도 지속
- 흡연실 증설
- 흡연실 지정
- 흡연실 확대
- 흡연실 확보
- 흡연실 확충
- 흡연실 환경 개선
- 흡연실 환경 개선 및 확대
- 흡연실 환기구 보완
- 흡연실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흡연실을 각 층에 설치
- 흡연실을 운영하되 환기시설의 확충이 필요. 흡연율이 50% 미만일 경우 금연건물로 지정
- 흡연실의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음.
- 흡연자끼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함.
- 흡연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격리된 공간 확보 필요
- 흡연자들이 흡연구역 등을 잘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
- 흡연자를 위한 공간(공기흡입시설 등)이 필요함.

- 흡연자에 대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
- 흡연자에게 장소 제공
- 흡연장소 마련
- 흡연장소를 확실하게
- 흡연지역 설정

### ● 강력한 금연 정책의 시행 (20)

- 구내매점에서의 담배 판매금지
- 금연킴 등을 지급하여 청사내에서의 흡연미연방지
-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 건의함 설치
- 담배값 인상
- 담배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직접흡연을 줄이면 간접흡연도 자연적으로 감소
- 담배값의 획기적 인상
-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제재가 있어야 함.
-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
- 담배 자판기 철거
- 법을 제대로 집행
- 복지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사무실 감시 점검
- 절대금연건물 제도의 철저한 후속조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 필요
- 절대적으로 청사내 흡연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 정부가 금연을 위한 시책들을 시행(금연침 등)하길
- 청사내 흡연금지 확산
- 초강경책을 세워서 스스로 담배를 덜 피우게 하길
- 흡연구역 지정 및 준수 의무화
- 흡연을 강력히 통제해야 함.
- 흡연자에게 금연을 위해 예산지원 요망

●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 (40)

- 금연구역내 흡연 절대 금지-규칙에 반영 위반시 불이익
- 규정으로 못피우게 하고 적발될 경우 적당히 처벌 규정을 두면 된다.
- 규칙 위반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함.
-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과감한 제재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연 프로그램을 가동
- 신상자 공개
- 건물내 흡연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고려해야 함.
- 금연구역 확대하고 위반자 명단 공개(강력 조치 필요)
- 금연구역내 흡연시 강력한 제재조치 동원 비정기적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등
- 금연구역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범칙금 등 제재조치 병행 필요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직원들의 peer pressure 등 제재 조치 필요
- 금연의식이 없는 조직은 강력한 통제수단이 필요
- 벌금 및 근무평가 인사 승진시 반영, 위반자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벌금 및 상습자는 징계
- 복도, 화장실 흡연자에 대한 벌금 부과
- 불시 단속 강화-적발시 벌금 조치
- 불시에 흡연여부를 점검하여 벌금을 물리는 등 강제적인 조치 필요
- 신고함을 설치하고 위반자에게 벌당직을...
- 실내 흡연자에 대한 벌칙 부과, 흡연자의 의료보험 차등 부과, 담배 자판기 철거
- 위반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 인사운영상 불리한 대우, 금연 교육 등 실시
-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필요
- 적발시 불이익 조치가 필요

- 청사내의 흡연자에 대하여 엄격히 감시하고 처벌하길
- 절대금연건물로 지정되면 이를 어길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함.
-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적발 필요(주의나 경고를 주고 누적될시 인사상 불이익을 줌)
-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하여 엄격히 준수 관리
-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강력한 penalty가 필요
- 청사내 담배소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필요
- 청사내 흡연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필요(과태료 부과 등), 화장실내 흡연도 적극 단속 필요
-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조치
- 흡연구역 위반시 벌칙 철저
- 흡연시 강력한 제재 필요-벌금 10만원 징수, 3회 이상 적발시 고과 점수 반영(감점처리)
- 흡연자 신고함의 설치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체고발시스템 구축이 필요
- 흡연자 인터넷 공개,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토록 적극 홍보. 과태료 부과
- 흡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필요
- 흡연자에 대해 신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함.
- 흡연하는 행위 방지(징계 조치)
- 흡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서명케 함.

### ● 금연자에 대한 포상 (9)

- 금연 실행자에 대해 incentive 부여
- 금연 유도를 위해 금연할 경우 인센티브(예산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금연포상금 제도 실시
- 금연시 인센티브 제공
- 금연수당 지급, 보험료 차등 징수 등 대책 필요

- 금연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 비흡연자에 대하여 별도 수당지급
- 인센티브제도 도입
- 흡연자가 금연하면 인센티브 부여

### ● 간부들의 술선수범이 필요 (9)

- 국, 과장급의 술선수범하는 분위기 또는 제재 장치 필요
- 간부들의 술선수범이 필요
- 간부사무실에도 금연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
- 고위직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흡연 자제
- 사후 감독, 관리 부재로 실내 흡연 적발 불가
- 상급자가 술선수범해야 한다.
- 상급자의 술선수범이 우선되어야 함.
- 상위직 공무원이 지키지 않을 경우 좋은 대책도 실효 없음.
- 일반직원은 물론 독방을 쓰는 상위직도 금연구역을 지켜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 금연 교육 홍보 강화 (34)

-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 필요
- 교육, 홍보를 실시 스스로 흡연구역을 찾도록 유도해야
- 금연 건물내에서 흡연시 벌금 부과
-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 및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기적 교육 요망( 비디오 교육, 전문강사 교육 등)
-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면 유럽 선진국 사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

- 금연교실 등 대체방안 마련 요망
-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교육실시
-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지도, 감시 필요
- 금연학교 개설
- 금연홍보를 정책적으로 해야 함.
- 끊임없는 홍보가 필요
- 담배끊는 방법을 꾸준히 교육
- 정기적인 방송홍보
- 실시하려면 강력하게 6개월 이상 지도, 감독,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에티켓 홍보
- 외부인에 대한 계도, 캠페인 강화 바람
- 자발성 유도해야 함.
- 청사내 담배가게를 없애고, 담배 해악을 알리는 포스터 부착
- 지속적 교육 강화 및 청사내 흡연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지속적인 계도 실시
-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 직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으면
- 청사내 금연학교 개설 운영
- 홍보 프로그램 방영, 포스터 부착, 구내 방송 수시 실시 등 강력하게 금연을 유도해야
- 홍보강화
- 흡연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흡연 폐해에 대해 홍보 필요, 절대 금연지역으로 선포
-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필요
- 흡연이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 실시, 금연 수당제 실시
- 흡연자에 대한 계몽
- TV ,신문 등을 통한 홍보



부록 2: 조사표

부처		성별	ID		조사원		

중앙부처 공무원 흡연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중앙부처 공무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금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5분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손일룡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 383-2294

※ 우선, 아래의 개인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R1. 소속: \_\_\_\_\_부(처)

R2. 직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7급            ⑧ 8급  
                 ⑨ 9급    ⑩ 기타    ⑪ 장관        ⑫ 차관

R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R4. 출생 연도: \_\_\_\_\_년

R5. 근무 경력: \_\_\_\_\_년

※ 다음에는 금연행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예, 현재 담배를 피웁니다. (아래 질문 2-1번으로)  
 ② 아니오,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3 페이지 질문 3-1번으로)

※ 현재 흡연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1에서 ①로 응답하신 분만 아래 박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1. [ 귀하는 현재 흡연자입니다. ] 매일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예, 매일 피운다. (질문 2-1-1번으로)  
 ② 아니오, 매일 피우지는 않고 가끔씩 피운다. (질문 2-2번으로)  
 2-1-1. (매일 흡연하는 경우만)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4개비 ② 5-9개비 ③ 10-14개비 ④ 15-19개비 ⑤ 20개비 이상

2-2. 그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 이상 의도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 ① 예 (질문 2-3번으로) ↓ ② 아니오( 질문 4번으로) ➡

2-3.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경우 중 가장 오래 담배를 끊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 3개월 미만 ③ 3개월 ~ 6개월 미만  
 ④ 6개월 ~1년 미만 ⑤ 1년 이상

2-4.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금연 후 일어난 신체적인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  
 (현기증, 기침, 두통, 갈증, 수면장애, 집중력의 감소 등)  
 ②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권하여서  
 ③ 업무,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④ 회식 또는 술자리에서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서  
 ⑤ 몸무게가 늘어서  
 ⑥ 언제라도 금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하여  
 ⑦ 기타(구체적으로 : )

➡ 4 페이지 질문 4로 가십시오

※ 현재 비흡연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1에서 ②로 응답하신 분만 아래 박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3-1. **[귀하는 현재 금연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한번도 담배를 피워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담배를 피우다 끊으셨습니까?
- ① 과거에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 (질문 4번으로)  
 ② 과거에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질문 3-2번으로)
- 3-2. **[과거에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셨습니다]** 그 당시 금연을 시도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금연 권유로  
 ③ 텔레비전, 서적 등을 통하여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  
 ④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족, 동료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금연을 시작함)  
 ⑤ 흡연구역의 축소, 벌금 부과 등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때문에  
 ⑥ 기타(무엇: )
- 3-3. 그 당시 시도한 금연방법은 다음 중 어떤 방법입니까?
- ① 자신의 의지로 끊음                      ② 금연침 시술  
 ③ 금연 패치 이용                            ④ 금연교실 입소  
 ⑤ 금연초 사용                                ⑥ 기타 (무엇: )
- 3-4. 담배를 피우다 끊은 이후에 어떠한 건강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건강상의 변화가 없었다 ➡ (질문 4번으로)  
 ② 건강이 좋아졌다 ↓ (질문 3-4-1번으로)
- 3-4-1.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기증의 감소                              ② 두통의 감소  
 ③ 집중력의 증가                              ④ 피로감의 감소  
 ⑤ 소화기능의 향상                          ⑥ 가래 감소  
 ⑦ 기침 감소                                    ⑧ 숨가쁜 현상의 감소  
 ⑨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림        ⑩ 성생활 능력의 향상  
 ⑪ 피부가 좋아짐  
 ⑬ 기타 (무엇: )

4.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의 흡연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담배 연기 자체가 싫은 느낌은 제외)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5.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를 정기적으로 흡입할 경우(간접흡연), 건강상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② 건강상의 피해가 약간 있을 것이다  
 ③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건강상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6. 현재 정부 청사에서는 흡연실(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무실, 복도 등에서 금연/흡연 구역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즉,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④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7. 향후 정부청사는 절대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청사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고, 청사 밖에서만 흡연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바람직하지 않다  
 ② 필요한 정책이므로 찬성한다  
 ③ 필요한 정책이므로 찬성하고, 절대금연건물은 정부청사 외 공공건물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기타 정부청사 내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가운데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